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사회학석사 학위논문

한국인의 이주민 인식:

이주민 인식에 따른 이주민 정책 태도 및 접촉의 조절효과

2023 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권 나 현

한국인의 이주민 인식

- 이주민 인식에 따른 이주민 정책 태도 및 접촉의 조절효과 -

지도교수 김 석 호

이 논문을 사회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7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권 나 현

권나현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7월

위 원 장 김 백 영 (인)

부위원장 임 동 균 (인)

위 원 김 석 호 (인)

초 록

이 연구는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다양한 하위 범주로 구성되며, 이주민과의 접촉은 한국인이 이미 형성된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이주민 연구에서 더 나아가 이주민 인식을 이주민 연구의 주요 이론인 사회정체성이론, 경쟁이론, 위협이론, 이 세가지로 분류하여 각 인식이 이주민에게 호의적인 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더불어 내재된 이주민 인식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주민 유입으로 인한 접촉이 어떻게 조절하는지 연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5 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 내 내국인 주민 인식조사」를 활용하였고,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이주민에게 호의적인 정책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이주민과의 친밀하고 깊은 접촉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정체성, 경쟁인식, 그리고 위협인식과 관련된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모두 이주민에게 호의적인 정책에 부정적 태도를 갖도록 영향을 미쳤다. 특히 한국 경제에 대한 관련 위협인식이 가장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이주민과의 친밀하고 깊은 접촉은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로 모두 유의미하게 작용했다. 우선 지난 2 주간 친밀한 접촉이 있었던 경우, 이주민에게 호의적인 정책에 반대하는 태도가 유의미하게 완화되었다.

이주민과의 친밀한 접촉은 “이민자들이 인력부족 노동력 제공”, “이민자들이 한국 경제에 도움”, 그리고 “이민자로 인한 복지예산 부담” 등 이주민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가 이주민 지원 정책에 미치는 효과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주민에 대한 인식을 세가지 주요 이론에 기반하여 하위요소로 분리하여 살펴봄으로써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단일적이지 않고 각기 다른 영향력을 보유한 것을 발견하였다. 더불어 접촉이 미치는 조절효과를 통해 한국인에게 내재하는 이주민 배타주의를 친밀한 접촉이 일부 완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국내 이주민의 유입에 대한 한국사회의 대처 및 사회통합 방안의 마련과 다문화 수용성 제고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주요어 : 이주민수용성, 다문화수용성, 사회정체성, 경쟁이론, 위협의식, 접촉가설
학 번: 2021-25192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4

제 1 절 사회정체성이론: 내재된 배타주의와 이주민 경계의식 4

제 2 절 경쟁이론: 인지된 불이익과 집단간 적의 7

제 3 절 통합적 위협 이론: 두려움에 기반한 집단간 갈등 9

제 4 절 접촉가설: 접촉과 관계형성을 통한 갈등완화 13

제 5 절 국내 이주민 수용성 선행연구 검토 17

제 6 절 연구문제 및 가설 22

제 3 장 자료와 분석방법 27

제 1 절 연구자료 27

제 2 절 분석방법 30

제 3 절 변수의 구성 30

제 4 절 연구모델 33

제 4 장 분석결과 34

제 1 절 사회인구학적 특성 34

제 2 절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이주민 호의 정책 반대에 미치는 영향 41

제 3 절 친밀한 접촉의 조절효과 47

제 5 장 결론 52

참 고 문 헌 59

Abstract 66

표 목 차

[표 1] 주민등록 외국인 비율 29

[표 2] 기초통계표 36

[표 3]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38

[표 4] 이주민과의 친밀한 접촉 40

[표 5] 이주민 호의정책 반대 태도 45

그 림 목 차

[그림 1] 연구모델 1, 2, 3, 4, 5 (가설 1, 2) 33

[그림 2] 연구모델 6, 7, 8 (가설 3) 33

[그림 3] 이주민의 인력 부족 노동력 제공과 접촉의 질 조절효과 47

[그림 4] 이주민의 한국 경제 도움과 접촉의 질 조절효과 49

[그림 5] 이주민을 위한 복지예산 가중과 접촉의 질 조절효과 50

제 1 장 서론

대한민국은 더이상 단일민족 국가라고 불리우기 어려울 만큼 외국인의 유입이 활발해졌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이미 200 만명을 넘어섰으며, 통계청은 향후 20 년 이내 외국인 인구가 100 만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통계청, 2022). 이러한 외국인의 폭발적인 유입을 둘러싼 여론이 쉽게 통일되지 않고, 이민정책과 이민청의 설립 등 이주민에 대한 국경 및 처우에 관련한 국가의 방향성은 계속해서 모호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한국사회만이 처한 상황은 아니다. 한국과 비슷한 경제 • 사회적 상황에 놓인 여타 국가들의 경우에도 오랜 시간에 걸쳐 이주민 유입의 가속화를 겪었고, 그 중에는 결국 안정화를 도모한 경우도 다수이다. 현재 한국에서 이주민을 둘러싼 논의가 대부분 경제와 일자리에 치중되어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유럽 또한 비슷한 수순을 밟았다. 경제적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가가 저출산 • 고령화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노동시장, 특히나 제조업 분야에서의 청년층 취업기피 및 근로자의 고령화 등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은 이주민을 인력난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여겼으며, 임시 노동자, 정착 고숙련 노동자 등을 통하여 노동시장의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양상을 보였다. (김용찬, 2008)

비록 이러한 방식의 인력난 해결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처우, 관련 범죄, 세금문제 및 경제적 손실에 대한 진단이 명확히 내려지지 않았지만, 향후 외국인의 유입 증가가 불가피한 것은 확실한 일이다. 전세계적으로 국제이주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이주가 경제적 목적을 띈 만큼, 한국사회가 사회경제적으로 발전할수록 더 많은 해외 노동인구가 한국을 찾아 단기 혹은 장기로 정주할 것이다 (Swain, 2019).

그러나 비슷한 발전적 위치에 있는 유럽과 같은 여타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은 현저히 떨어지며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이다. 2021 년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국민 다문화수용성 지수는 2012 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52.27 점으로, 2015 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다 (여성가족부, 2022). 그 외에도 난민수용이나 외국인 및 이민정책, 국적관리 등 이주민에 관련된 여론과 정책에서 비교적 부진한 이주민 수용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저조한 이주민 수용성은 한국 혹은 동아시아의 국민적 특성으로 설명되어지곤 한다. 특히나 한 국가의 구성원들이 '국민됨'을 이해하는 방식인 국민정체성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한국의 혈통주의와 단일민족 지향성으로 이어진다 (윤인진 & 송영호, 2011). 따라서 이주민과의 통합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관찰할 수 있으며, 높은 국민정체성이 초래하는 국가 자긍심 또한 외집단을 사회 구성원이나 이웃으로 맞이하는 것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정하나, 2016).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 특히나 국내 이주민 연구는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두려움, 그리고 결과되는 이주민에 대한 태도 및 편견을 하나의 변수로 상정하여 측정하는 것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 이주민의 유입으로 인한 접촉의 증가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이주민에 대한 인식을 접촉으로 인해 파생되는 매개변수로만 사용하여 연구모델을 설정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러나 이주민에 대한 인식은 사실상 한국의 문화 및 민족적 특성에 기반하여 접촉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미 선행하는, 고유의 외집단 배타주의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이주민 연구에서 더 나아가서 이주민 인식을 이주민 연구의 주요 이론 세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이 이주민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더불어 내재된 이주민 인식이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주민 유입으로 인한 접촉이 어떻게 조절하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질문은 우선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특히나 사회정체성, 경쟁인식, 그리고 위협인식이 이주민에게 호의적인 정책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고, 두번째로는 가속화되고 있는 이주민의 대량 유입이 초래하는 이주민과의 접촉이 앞선 첫번째 관계에 미치는 상호작용이다. 즉, 본 연구의 관심사는 이주민 인식과 이주민 수용성 간의 직접관계 및 해당 직접관계에 이주민과의 접촉이 가지는 조절효과이다.

사회통합의 제고를 위해 정부가 국민대상의 다문화교육이나 교류활동 등을 추진해왔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주민 배타성이 완화되지 않고 있는 현재, 이 연구를 통하여 불가피한 이주민의 유입에 한국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질문과, 효과적인 사회통합의 방향성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사회정체성이론: 내재된 배타주의와 이주민 경계의식

이주민 갈등의 근간에는 자국민과 이주민을 나누는 집단적 행동이 있다. 특히나 자국민을 내집단(ingroup)으로, 이주민을 외집단(outgroup)으로 구분짓는 태도에서부터, 외집단에 대해 부정적 태도와 인식을 가지거나 외집단을 몰아내려는 극단적 행동까지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집단간의 구분과 갈등은 사회정체성 이론에서 시작된다.

이전까지의 사회심리학이 집단 갈등을 개인적 편견과 동기에 근거하여 설명한 것과 차별점을 두어, 캠벨 (Campbell, 1965)은 개인간 행동과 집단관 행동을 분리한다. 캠벨은 이를 현실적 집단 갈등 이론 (realistic group conflict theory; RCT)이라고 명명하고, 희소 자원으로 인한 사회계층화가 일어나면 내집단 중심주의와 외집단에 대한 적대감이 심화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캠벨의 이러한 설명은 실질적 외부 갈등이 나타나지 않는 집단 간의 경쟁이나 희소 자원의 부재에도 관찰되는 외집단 적대감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를 위해 타지펠과 터너 (Tajfel & Turner, 2004)는 사회정체성 이론 (social identity theory; SIT)을 제안한다. 사회 정체성 이론은 개인이 자신을 사회적 집단의 구성원으로 여기면서 형성되는 소속감 또한 개인의 정체성을 일부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형성된 정체성은 특정한 갈등이나 희소 자원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개개인이 외집단에 대한 편견을 가지거나 외집단을

차별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한다. 이러한 현상은 개개인은 언제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데,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속한 집단의 평가와 긴밀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집단의 평가는 외집단과의 비교 및 경쟁을 통해 결정되고, 따라서 개인은 집단에 소속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외집단에 대한 경쟁심리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사회정체성은 내집단에 대한 친사회성, 혹은 이타성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사회정체성은 내집단에 대한 호감도 또는 선호도를 증가시키고 내집단의 발전을 추구하게 만든다. 따라서 개인은 내집단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취하고자 노력하는데, 높은 사회정체성은 기존의 개인이 잘 취하지 않는 이타적이고 친사회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데에 강력한 동기로써 작용한다는 것이다 (Hackel, Zaki, & Bavel, 2017).

본 연구는 한국의 높은 사회정체성을 인지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사회정체성의 한 형태인 국민정체성은 내집단과 외집단을 국가 또는 국민으로 설정한 경우를 뜻한다. 국민정체성은 종족적-혈통적 모델과 시민적-영토적 모델로 구분되는데, 한국의 경우 내집단의 구성을 혈통에 기반하여 상정하고, 집단기억과 문화의 공유 등을 주시하는 종족적-혈통적 모델의 양상을 띈다고 알려져 있다 (윤인진 & 송영호, 2011). 종족적-혈통적 모델의 국가는 외집단인 이주민을 포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배타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한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민 정체성, 특히나 종족적-혈통적인 민족주의 정체성은 내집단과 외집단 간의 경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외집단에 대한 적대감을 심화시킨다 (김정규, 2015). 따라서 한국에 만연한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은, 단순히 국가 간 경쟁과 갈등 혹은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경험 때문이라고 치부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을 단순히 종족적-혈통적 모델에 국한시키는 시선에서 벗어나 한국의 높은 사회정체성을 단일민족 이데올로기로 설명하기도 한다. 종족은 조상과 혈통이 같은 집단으로 설명되는 반면 민족은 영토성, 공동성, 역사성, 즉 제한된 지역에서의 공동생활, 언어와 문화의 통일,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통의 역사를 전제한다 (강진웅, 2019). 이러한 새로운 시각은 현재 한국의 사회적 현안인 북한이탈주민과 외국국적 동포의 정체성과 사회통합을 설명하는 것에 용이한데, 앞선 종족적-혈통적 모델에 기반하였을 경우 한국인은 북한이탈주민과 외국국적 동포의 수용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모델의 신뢰성이 검증된다. 그러나 관련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북한이탈주민과 외국국적 동포의 수용은 종족적 민족주의와 유의미한 관계에 놓이지 않는 경우가 더욱 많으며 오히려 시민적 민족주의, 즉 시민권에 대한 의식을 보유한 개인일수록 이들에 대한 수용성에 높아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김정규, 2016). 따라서 단일민족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내집단을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일한 혈통이나 종족이 아니라 공통의 역사를 경험하였고 같은 영토에서 공동생활을 지낸 민족이라는 시각과 시민권에 대한 인식이다. 단일민족 모델 또한 마찬가지로 한국의 높은 사회정체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

지금까지의 많은 국내 이주 분야에서는 교육수준이나 소득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다문화 수용성, 혹은 특정 개입 방법을 통해 다문화 의식을 함양하는 연구를 진행해왔다. 특히나 정치참여, 성별, 학력, 사회 신뢰도, 경제력, 문화자본 등과 같은 개인의 사회 계층과 생활방식, 특성 등을 다문화 수용성에

연관시켜 관계성을 고찰한 연구가 많이 집필되었다 (이수경, 2021; 곽윤경, 2020). 그러나 국민집단의 정체성과 이들이 시민권을 이해하는 방식이 이미 외집단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내재한다면, 이것은 외국인이 한국에 유입되기 이전부터 한국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이주민에 대한 경계이며, 따라서 하나의 고유한 집단적 특성으로 상정 및 연구되어져야 한다.

제 2 절 경쟁이론: 인지된 불이익과 집단간 적의

앞서 설명된 사회정체성 이론에 더하여서 내집단과 외집단, 특히 이주민과 선주민의 불화와 갈등을 더욱 선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경쟁이론이다. 경쟁이론은 둘 혹은 더 많은 인종집단이 일자리, 거주지, 혹은 결혼상대와 같은 한정된 자원을 놓고 경쟁 및 취득해야 하는 상황에서 갈등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Olzak, 1987). 특히나 인종집단 간의 경제적 갈등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해당 이론은, 이전의 갈등 이론들이 시간에 따른 갈등의 완화를 예측한 것과는 다르게 현실에서는 갈등이 유지되거나 심지어는 심화되는 현상을 다루었다. 경쟁이론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주는 저소득국가에서 고소득국가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값싼 노동력, 특히나 제조업의 취업경쟁이 심화되고 이것이 집단간의 적의로 이어진다는 원리이다 (Olzak, 1987).

당연하게도, 이 경쟁은 해당 사회의 경제가 불안정해지면 더욱 심화된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경제의 하락은 한정된 자원의 양을 더욱 축소시키고, 구조조정 등으로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러한 사회적 위기는 내집단에게 두려움을 유발하고, 상대적으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외집단에 대하여 적의와 경쟁심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외집단의 자원 증가는 이러한 두려움을 가중시킨다. 교육수준이나 정치의 장벽, 혹은 재분배 정책의 도입은 이주민 집단의 권력 상승으로 보여져 갈등의 동기가 된다 (Olzak, 1987).

실제로 국내 이주민에 대한 반대여론은 일자리를 비롯한 경제적인 이유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이것이 대체로 실제 내집단에게 가해지는 경제적 불이익이 아니라 불이익에 대한 인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앞선 연구들이 저소득국가에서 이주한 노동력은 대체로 유입국의 저소득 노동시장에서 경쟁을 유발할 것이라고 예측하였고, 따라서 기존의 생산기능직 노동자들을 주요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근래의 연구들은 이러한 경쟁이 경험적으로 실존하지 않더라도 앞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한정된 일자리와 이주민의 경쟁력에 대한 인지적 믿음이 이러한 경쟁의식을 심화하고, 따라서 갈등은 노동분야와는 관계없이 모든 인종집단 내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정인, 2011).

이러한 논거의 변화는 앞선 사회정체성 이론에서 설명된 이주민 갈등과도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 경쟁이론에 따르면 인종집단, 특히나 이주민과 선주민 간의 갈등은 경험적 경쟁과 불이익이 아닌 불이익에 대한 인지를 통해 결과한다. 사회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내집단은 외집단과의 직접적인 갈등이 없더라도 내집단에 대한 깊은 정체성을 통해 외집단 배척과 혐오의 경향을 보인다. 즉, 이주민 사회통합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실제 갈등에 대한 진단이 아니라 이주민에 대해 선행하는 적의와 두려움의 심리적 면모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제 3 절 통합적 위협 이론: 두려움에 기반한 집단간 갈등

앞선 두개의 이주민 갈등 이론을 통해 이주민에 대해 선행하는 적의와 두려움의 심리적 면모에 대한 중요성을 살펴본 바 있다. 두 이론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이주민 갈등의 중요 조건은 경험적으로 실재하는 외집단에 의한 불이익이나 경쟁 혹은 충돌이 아니라 이주민에 대한 인지적 불이익 혹은 두려움이었다. 즉, 외집단인 이주민을 내집단이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로 상정하는지가 집단간 갈등을 유발하는 핵심적인 요건 중 하나이다.

이러한 인지적 두려움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으로는 통합적 위협의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내집단이 외집단, 특히나 이주민에게 느끼는 두려움과 경계심인데, 위협의식을 통해 편견이 생성될 수 있으며, 이 편견은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결과한다. 스테판 (Stephan & Stephan, 2000)은 이 개념을 통합적 위협 이론 (Integrated Threat Theory; ITT)이라고 명명했으며, 위협을 네가지 종류로 분류하여 설명했다. 첫번째로 현실적 위협은 권력, 자원, 복지 등 내집단의 안녕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들을 포함하며, 이는 인지된 위협이다. 즉, 실제 위협이나 갈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주관적 사고를 거쳐 인지된 위협은 편견을 초래할 수 있다. 두번째로 상징적 위협은 내집단과 차별되는 외집단의 도덕규범, 가치, 사회적 기준, 믿음, 태도 등을 포함한다. 개개인은 내집단의 도덕적 옳음을 신뢰하기 때문에, 외집단에 의한 가치의 부정은 편견을 결과할 수 있다. 세번째는 집단 간 불안이다. 집단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개인은 가능한 부정적 결과들을 예측하고, 이로 인해 부정적 감정과 불안을 가진다. 마지막은 부정적 고정관념이다. 고정관념은 관념 속 외집단의 구성원이 취할 행동에 대한

상상의 바탕이 되는데, 이 고정관념이 부정적인 경우 내집단과 외집단의 갈등상황이나 불쾌한 상호작용이 예측된다 (Stephan & Stephan, 2000). 그러나 최근 통합 위협 이론의 재고를 통해 이와 같은 위협의 네가지 분류를 두가지로 줄이는 것이 제안되었다. 집단간 불안의 경우, 이것이 하나의 독립된 불안이 아니라, 집단간의 접촉에서 이미 존재하는 여러 위협들로 인해 생겨난 하류 위협으로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더불어 부정적 고정관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위협보다는 현실적 및 상징적 위협에 의해 부수적으로 생겨나는 이차적 위협으로 상정하는 것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Stephan et al., 2018).

더불어 스테판 (Stephan & Stephan, 2000)은 사회정체성 및 외집단과의 부정적 접촉이 이러한 위협의식의 네가지 유형을 모두 심화시킨다고 주장한다. 내집단에서 긴밀한 소속감을 느끼는 개인이어야 그 집단에 가해지는 위협이 자신에게도 전가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스테판은 외집단과의 접촉, 외집단에 대한 지식, 이전의 갈등, 현재 내집단의 사회적 위치 등이 위협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서술한다.

위협의식은 내집단 내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문화적 차이에 의해서도 예측 및 설명될 수 있다. 문화적 차이는 개인주의-집단주의와 권력거리 등을 포함한다. 우선, 정체성이 개인의 특성에 의해 설명되고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문화권보다, 개인의 정체성이 집단의 특성에 의해 설명되고 집단적 행동이 중시되는 집단주의적 문화권에서 외집단에 대한 위협의식은 더욱 심화된 양상으로 나타난다. 더불어 집단주의적 문화권은 집단의 권력 불평등을 수용하는

정도인 권력거리가 높기 때문에 사회 내 갈등이 잦은 경향이 있고, 따라서 위협의식에 더욱 취약하다 (Stephan et al., 2018).

위협의식은 기본적으로 외집단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의 부정적 변화를 초래하며, 이러한 내집단의 반응을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번째는 인지 반응으로, 위협의식을 통해 내집단은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게 되고 더불어 자민족중심주의, 불관용, 혐오, 외집단의 비인간화 등이 관찰된다. 귀인오류, 기억치우침, 과대평가 등의 인지편향에 빠지거나 외집단에게 호의적인 국가정책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두번째는 감정 반응으로, 위협의식을 가진 내집단 구성원은 외집단에 대한 공포, 불안, 분노, 혐오 등을 느끼게 되며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외집단에게는 감소하고 내집단에게는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행동 반응은 포기, 복종, 차별, 부정행위, 절도, 괴롭힘, 방해, 공격 등을 포함한 집단간 갈등으로 묘사된다 (Stephan et al., 2018).

통합적 위협의식의 특이성은, 이것이 실재하는 위협이 아니라 명시된 것과 같이 '인식된' 위협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주민 집단과의 직접적인 갈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위협인식은 생성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위협 인식은 인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기 불황과 같은 개인적 삶의 불안정성이 위협인식을 심화하거나, 혹은 국가의 이민자 친화적인 정책이 시민들에게 일자리 부족 등과 같은 경계심을 부여하여 위협인식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황정미, 2016). 즉, 외집단이 아니라 내집단 내부의 문제나 취약성이 위협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사회에서 위협의식은 사회에 만연한 반이주적 정서를 구성하는 주된 요인이다. 정하나 (2016)는 한국인과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다문화를 위협으로 인지하게 하는 요소들을 연구하였고, 두 집단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특히나 한국인의 경우, 사회적 거리감, 학력, 민족적 요인, 집단 편견이 다문화 위협에 영향을 미치나, 이주민의 경우 집단편견, 시민적 요인, 그리고 차별인지가 다문화 위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앞선 사회정체성 이론과 통합적 위협 이론의 교차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며, 특히나 한국의 내재적인 민족주의적 요인이 여타 국가들과 한국의 이주민 수용 과정에 차별성을 부여한다. 즉, 한국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위협의식은 특정 사건이나 경험이 아닌 국민적 특성에 의해 형성된 정서이다.

더불어 박서연 (2019)은 국민정체성과 위협의식, 그리고 이주민 수용성의 관계를 확립하였다. 국민정체성의 경우, 한국의 부계혈통주의, 속인주의 등을 포함하는 민족정체성과, 대체로 구분하여 연구되어지는 법, 제도적 측면의 시민정체성을 통일하여 조작화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이 위협의식을 종속변수인 다문화수용성의 일부로 다룬 것과는 다르게 위협의식이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서 작용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국민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를 위협의식이 완전히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주민과의 접촉이 더 많은 경우,위협의식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욱 심화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외집단에 대한 위협의식은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 황정미 (2016)는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사회적 거리와 위협인식 개념을 통해 연구한다. 특히나 황정미는 위협인식을 개인적 위협, 외집단의

집합적 위협, 현재 사회환경의 위협, 그리고 통일 이후 사회환경의 위협에 대한 인식, 이렇게 네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각각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분석 결과, 교육 수준이나 소득과 같은 개인적 위협은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사회환경의 위협, 특히나 빈부격차와 국가의 지원 정책은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보였다. 더불어 북한 이탈주민의 집합적 위협에 대한 인식 또한 수용성을 저하시켰다. 즉, 외집단인 이주민에 대한 위협의식은 그들 자체에 대한 인식에서도 기인하지만, 더불어 내집단의 사회적 상황에 의해서도 초래될 수 있다.

제 4절 접촉가설: 접촉과 관계형성을 통한 갈등완화

위에서 언급된 이주민 수용성과 인식 연구 중 상당수가 이주민과의 접촉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는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상정되기 때문이며, 위협이론은 대체로 이를 설명하는 매개체로 여겨진다. 기존의 접촉 이론은 집단간의 상호작용이 거치는 네 단계의 접촉을 이론화하였는데, 이는 차례대로 단순 접촉, 경쟁, 조절 및 동화이다. 그러나 올포트 (Allport, 1954)는 이러한 이론적 상호작용이 실제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최적화된 접촉의 성질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접촉의 이상적 성질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접촉의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양적인 측면, 접촉대상 간의 지위 관련 측면, 접촉의 역할적 측면, 접촉 주변의 사회적 분위기, 접촉하는 개인의 성격, 그리고 접촉의 영역 또는 환경 등이 있다. 올포트에 따르면, 우연하거나 가벼운 접촉은 편견을 해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갈등과 편견을 심화시킨다. 반면 상대 집단에 대한 지식과 친분을 고조시키는 접촉은 기존의 '인지된' 믿음이 아니라 '타당한' 믿음을 통해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다. 더불어 접촉은 동등한 지위일 때 효과적이며, 공통으로 추구하는 이해관계나 목표가 존재할 때 협력을 통해 우호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당 접촉이 법이나 제도적 지원에 의해 공식적으로 주어진 상황이라면 접촉의 효과는 더욱 상승한다 (Allport, 1954).

그러나 이러한 올포트의 접촉 가설은 최근 이러한 접촉이 편견을 감소시키는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론화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페티그루 (Pettigrew, 1998)가 제안하는 집단 간 접촉의 과정은 총 네 단계이다. 우선, 올포트가 제시한 긍정적인 접촉을 통해 내집단은 외집단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여 부정적이고 상상된 인식을 보완하고 편견을 일부 감소시킨다. 편견의 감소는 자연스럽게 외집단을 향한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며, 우호적인 행동을 기반으로 한 상호작용은 집단 간의 긍정적인 심리적 유대를 고양시킨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접촉이 누적되어 외집단에 대한 내집단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결국 외집단에 대한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촉 환경의 구성에 거주지의 분리 및 통합은 큰 영향을 미친다. 같은 거주지를 공유하는 것은 올포트의 적절한 접촉 환경 중 동등한 지위, 공동의 이해관계 등 상당 부분을 충족하기 때문에, 이주민에 대한 편견을 완화하고 추후 더 많은 접촉의 수용을 낳는다 (See & Wade, 2022). 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거주지 내 주민들의 경제적 지위가 비슷한 경우에만 관찰된다. 거주지역에 이주민이 늘어나 접촉의 가능성이 높아지더라도, 해당 지역 내 불평등의 수준이 높다면 접촉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이고 배타적인

태도가 심화된다 (서준우 & 강우창, 2021). 즉, 올포트가 제안한 적절한 접촉의 방식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접촉은 되려 외집단에 대한 편견을 가중시킬 수 있다.

외집단과의 접촉은 접촉의 대상이 되는 외집단 뿐만 아니라 그 외 모든 이주민에 대한 편견 및 부정적 태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특정한 인종적 배경의 이주민과 접촉하는 것이 모든 이주민에 대한 편견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럽에 만연한 난민 혐오를 연구한 결과, 이주 배경이 있는 사람과 긴밀하고 적절한 접촉을 하거나 이주 배경의 친구를 사귀는 것이 난민 혐오 및 부정적 태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연하고 가벼운 접촉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발견하지 못했다 (Coninck et al., 2021).

대부분의 연구에서 접촉은 단순회귀 모형보다는 매개나 조절과 같은 간접효과 모형의 일부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타우쉬 (Tausch et al., 2009)는 인도에 거주하는 힌두교인과 무슬림의 갈등에 주목하여, 그들의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을 고찰하였다. 두 집단간 접촉의 질과 양, 그리고 내집단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인지가 독립변수로, 외집단에 대한 태도가 종속변수로 설정되었고, 위협인식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접촉의 양은 상징적 위협과 집단 간 불안에 유의미한 부정적 효과를 미쳤다. 그러나 현실적인 불안은 접촉의 양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외집단에 대한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인 경계는 접촉이 도움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이렇게 낮아진 상징적 위협과 집단간 불안은 외집단에 대한 편견 및 부정적 태도를 완화시켰다.

더불어 접촉의 영향이 그저 편견의 영향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민 인식과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관계를 상쇄하다고 주장하는 더욱 심화된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아브람스, 엘러, 그리고 브라이언트 (Abrams, Eller, & Bryant, 2006) 는 영국의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위협의식과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는데, 다른 연구들과는 다르게 외집단에 대한 태도를 인지능력을 통해 측정했다. 즉, 깊은 고찰 없이 나타나는 즉각적으로 반응이 함축하는 이주민에 대한 태도를 사용함으로서 사회적 선망 편향을 완화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 접촉과 위협의식은 이주민에 대한 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서로 조절하는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나 긍정적인 접촉이 선행한 경우, 위협의식은 이주민에 대한 불안에 더 이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위협의식과 접촉, 그리고 이주민에 대한 태도는 연구 대상이 되는 집단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접촉이 편견에 미치는 영향이 언제나 긍정 혹은 부정의 일방향적 결과를 도출하지는 않는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올포트는 접촉이 적절한 환경요건에 따라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만, 반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접촉은 오히려 편견을 가중시키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Allport, 1954). 따라서 다문화 사회에서 접촉은 기본적으로 제로섬 게임의 형태를 띈다. 접촉의 환경에 따라 접촉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측면이 더욱 부각되면 해당하는 변화가 나타난다. 이는 내집단의 상태나 특성에 따라서도 큰 영향을 받는데, 특히나 경제적 혹은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경우에 그렇다. 영국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연구 결과, 부유한 사회에서는 잦은 접촉이 다문화 수용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회에서는 외집단과의 접촉이 다문화수용성을 오히려 저하시켰다 (Laurence, 2014). 그러나 사회의 다양성이 증가할수록 인종 간 유대가 발생하여 긍정적 효과가 창출된다. 즉,

외집단과의 접촉은 사회의 상태와 접촉의 양에 따라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이주민 인식과 접촉, 그리고 외집단에 대한 편견 및 부정적 태도는 여러 외부 요인에 의해 변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집단의 크기는 부정적 인식을 가중시킴과 동시에 접촉의 가능성을 높인다 (Pettigrew, Wagner, & Christ, 2010). 특히나 정확한 수치가 아니더라도, 내집단이 인식하는 외집단의 크기는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이는 외집단 크기의 또 다른 결과요인인 집단간 접촉에 의해 완화될 수 있다.

제 5 절 국내 이주민 수용성 선행연구 검토

국내에는 이주민 수용성에 대한 최근 연구가 부족하고, 더군다나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배타성을 개별적인 하위요소들로 나누어 설명한 연구는 극소수이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국내 이주민의 유입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여타 비슷한 경제적 여건의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앞으로 한국의 세계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국내의 학문적 공백을 겨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재 국내의 이주민 수용성 관련 연구, 특히나 이주민 인식 및 이주민과의 접촉을 변수화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국내 이주민 수용성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다문화 수용성과 다문화 접촉의 관계성을 탐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다문화 교육의 관점에서 쓰여진 연구가 다수였고, 따라서 대상 집단이 미성년자이거나 청년인 경우가 많았다. 소수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주민과의 접촉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그 영향의 방향과 강도는 각 연구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다문화 접촉이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문화 개방성을 강화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반대로 다문화접촉을 통해 기존의 사회적 거리감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화되거나 다문화 수용성 자체가 저하되는 연구결과 또한 존재했다 (박현주 외., 2015; 전윤령 & 이봉민, 2022; 정진리 & 유가현, 2020; 노윤구 & 이외선, 2018; 최가희, 2019).

더불어 한국 내에서 대중이 이주민을 가장 자주 접하는 곳은 미디어이다. 뉴스, 소셜미디어와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고 전파된다. 신동훈과 양경은 (2020)은 미디어를 통한 이주민과의 접촉이 일반적인 접촉과 다른 양상을 띨 것이라고 예측했다. 연구결과, 이주민과의 피상적 접촉, 즉 접촉가설의 적절한 환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접촉은 다문화수용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대중매체의 경우, 해당 미디어가 표출하는 이주민의 모습과 내용에 따라 그 영향이 상이했다. 신동훈과 양경은(2020)은 이를 생산자의 의도에 따라 다르게 조작화될 수 있는 미디어의 특징을 통해 설명하였다. 이러한 대중매체의 효과는 최재우와 강운선 (2015)의 중학생 대상 연구에서도 드러나는데, 특히나 미디어의 특정 이미지가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드러남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대중매체를 통한 이주민과의 접촉이 수용성을 고양시키는 것은 남학생의 경우에만 해당되었다. 국내 이주민 접촉가설 연구가 더 나아가야 할 점은, 접촉의 맥락을 세분화하여 어떠한 접촉이 이주민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접촉이 그 반대의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 더불어 접촉의 영향과 수용성의 관계가 기반하는 메커니즘을

특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사회정체성, 경쟁이론 및 위협이론을 통해 구축하고자 하였고, 비슷한 시도가 이루어진 국내 연구는 다음과 같다.

서준우와 강우창 (2021)은 이주민과의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특정 지역의 경제적 불평등 수준이 조절하는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주민과의 접촉은 거주지 내의 외국인 수와 부동산 실거래가 지니계수로 측정하였으며 이주민에 대한 태도는 그들에 대한 일자리 경쟁의식과, 이주민과 친구가 될 가능성으로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지역 내 이주민의 증가는 외국인에 대한 우호적 태도로 이어졌다. 그러나 지역 내 불평등 수준이 높은 경우 이주민에 대한 배타적 태도가 심화되었다. 앞선 이주민의 증가로 인한 접촉의 효과는 지역 내 경제적 불평등 수준에 따라 약화되었다. 해당 연구는 이주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역 특성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점을 두었으며 불평등으로 기인하는 경쟁인식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위협인식을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이주민과의 접촉을 거주지 분리로 측정한 것은 올포트 (Allport, 1954)의 적절한 환경에서의 접촉이 아니라 우연하거나 소통이 없는 가벼운 접촉을 다수 포함하므로 해당 결과가 접촉가설의 이론적 논의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찰이 필요하다. 송영호 (2021) 또한 지역 특성에 주목하였는데, 앞선 서준우와 강우창 (2021)과는 달리 빈곤율, 이혼율, 노령화지수 등으로 나타나는 지역 불안정 요인에 따른 이주민 인식과 접촉가설의 효과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지역 불안정 요인 중 특히 이주민 거주 비율, 이혼율, 노령화 정도 등이 유의미하게 이주민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접촉가설에 따른 외국인 친구 효과를 포함하였을 때,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완화되었다. 배은주와 장소현 (2020)은 위협인식을 활용하여 접촉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였는데 특히나 간접접촉, 즉 외국인을 목격하는 것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주민에 대한 위협인식이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박서연 (2019)은 다문화수용성 연구에 한국의 특수성인 높은 사회정체성을 예측변수 및 매개변수로 포함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위협인식을 다문화수용성의 일부로 상정한 것과는 다르게, 박서연 (2019)은 위협인식을 다문화수용성을 결정하는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사회정체성이 다문화수용성에 직접적이고 유의미한 효과를 주지는 못했으나, 위협인식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를 완전매개했다. 즉, 높은 위협인식은 국민정체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이렇게 심화된 국민정체성은 다문화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앞선 이론적 배경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위협의식은 다문화수용성의 일부이거나 다른 예측변수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듯 국민정체성에 선행하여 이미 내재하는 외집단에 대한 태도이다. 이와 비슷하게 오영삼, 남성희, 윤수경 (2014) 또한 내집단의 특성을 연구모델에 포함시켰다. 해당 연구에서는 내집단의 특성을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이주민과의 경쟁 가능성이 높은 집단, 전통 및 도덕적 규범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 그리고 외국인과의 접촉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분류하였는데, 이에 더하여 외집단의 특성을 통일하기 위해 영미유오국 출신 외국인들을 특정하였다. 연구결과 취업경쟁이 가장 낮은 고용주 집단에서 높은 다문화수용성을 발견할 수 있었고, 청년층이 고령층에 비하여 높은 다문화수용성을 보유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의 일반적인 외국인 밀도는 낮은 다문화수용성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지만, 외국인을 영미유오국의

백인으로 특정하였을 때 이러한 관계의 방향이 변하였다. 즉, 접촉의 대상이 되는 외집단의 특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위에 나타난 것과 같이 국내 연구를 비롯한 이주민 수용성 연구는 이주민에 대한 편견이나 인식을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하나의 변수로 설정하였거나, 위협이나 경쟁 등 이주민에 대한 태도의 단일한 관점만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한국 문화의 주요 기반이 되는 사회정체성을 상호작용변수가 아닌 독립변수로 설정한 연구는 소수였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접촉 연구의 경우, 대체로 접촉가설만을 사용하여 이주민 수용성을 설명하였거나, 혹은 접촉가설과 이주민 수용성간의 직접관계를 이주민 인식이 매개하는 방식으로 연구모델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이주민 연구의 학문적 공백은 이러한 지점이다. 우선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다문화수용성, 혹은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여러 연구를 통해 드러났지만, 충분한 이론적 분류 및 하위요인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이주민에 대한 인식을 이주민 연구의 가장 근간이 되는 세가지 이론인 사회정체성 이론, 경쟁이론, 그리고 위협이론에 기반하여 분류하고 연구에 사용하고자 한다. 더불어 지금까지의 이주민 연구에서는 접촉이 이주민 수용성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드러났지만, 대부분 접촉을 독립변수로, 이주민에 대한 인식을 매개변수로 상정하여 접촉을 통해 형성된 인식이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앞선 이론적 논의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한국 및 국민정체성이 높은 여타 사회에서 외집단에 대한 배타적 인식이나 외집단과의 경쟁 혹은 위협은 민족주의적 요인에 의해 접촉 이전에

이미 내재된 국민적 특성이다 (정하나, 2016). 따라서 이주민 인식과 수용성 간의 직접적인 관계가 더 많이 연구되어야 하며, 이러한 인식에 이주민 유입의 가속화로 인한 접촉의 증가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상호작용을 확인하는 것이 현 한국사회에 대한 적절한 진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현 한국 이주민 연구가 가지는 한계를 넘어 이주민 수용성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6 절 연구문제 및 가설

앞서 제시한 이론적 배경과 국내외의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이주 연구에서 가장 기반이 되는 이론들을 살펴보았고, 또 동시에 접촉의 영향이 모델에서 주로 사용되는 양상 또한 검토하였다. 사회정체성 이론, 경쟁이론 및 위협이론이 서로 완전히 상호배타적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이주민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다르게 나타나는데, 현재까지의 연구 다수는 각각의 개별적인 특성을 살펴보기보다는 이주민 인식과 수용성, 이렇게 포괄적인 상위요소들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주민 인식을 기반 이론에 따라 하위요소로 분류하여서 각각의 인식이 이주민에 대한 태도, 특히나 이주민에게 호의적인 정책에 대한 의견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과 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지금까지 접촉이 매개모형의 독립변수로 사용되어졌던 것과 차별점을 두어 기존의 이주민 인식이 이주민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접촉이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두번째 목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높은 국민정체성과 민족주의 정서를 가진 한국 사회에서 사회정체성, 경쟁인식, 그리고 위협의식이 이주민에게 호의적인 정책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무엇인가? 더불어 이러한 관계는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 이주민의 대량 유입과 이에 따른 접촉의 증가에 의해 어떤 양상으로 변화할 것인가? 즉, 본 연구의 관심지점은 사회정체성, 경쟁인식 및 위협인식과 이주민에게 호의적인 정책에 대한 태도 간의 직접관계와 이주민과의 접촉의 조절효과이다. 이에 따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이주민에 대한 다양한 인식은 이주민에게 호의적인 정책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사회정체성에 관련된 부정적 이주민 인식이 강할수록 이주민에게 호의적인 정책을 반대하는 태도가 심화될 것이다.

(2) 경쟁인식에 관련된 부정적 이주민 인식이 강할수록 이주민에게 호의적인 정책을 반대하는 태도가 심화될 것이다.

(3) 위협인식에 관련된 부정적 이주민 인식이 강할수록 이주민에게 호의적인 정책을 반대하는 태도가 심화될 것이다.

우선, 본 연구는 사회정체성, 경쟁인식, 위협인식에 관련된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이주민에게 호의적인 정책에 대한 부정적 태도 간의 유의미한 양의 직접관계를 추정한다.

사회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자신을 사회적 집단의 구성원으로 여길 때 외집단에 대한 편견이 생성되고, 외집단을 차별하려는 경향이 발생한다 (Tajfel & Turner, 2004). 더불어 높은 사회정체성은 내집단에 대한 친사회성 혹은 이타성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내집단 전체의 발전과 이익을 위하여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더라도 사회정체성을 통해 친사회적인 사고와 행동을 취하는 경우를 관찰할 수 있다 (Hackel, Zaki, & Bavel, 2017). 따라서 이주민이 내집단 전체에게 해를 가하거나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인식이 높을수록 외집단에 대한 차별, 본 연구에서는 이주민 호의 정책에 대한 반대 태도가 심화될 것이다 (가설 1-1).

두번째로 경쟁이론에 따르면 집단간의 갈등, 더욱이 인종집단간의 갈등은 일자리나 결혼상대 등 한정된 자원을 놓고 경쟁 및 취득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특히나 일자리 경쟁의 경우, 대부분의 이주는 저소득국가에서 고소득국가로의 이동인데 이는 값싼 노동력, 특히나 제조업의 취업경쟁 심화로 인지되고 따라서 집단간 적의가 발생한다 (Olzak, 1987). 따라서 이주민과의 경쟁, 특히나 일자리에 대한 경쟁을 강하게 인식할수록 이주민 호의 정책에 대한 반대 태도가 심화될 것이라고 추정한다 (가설 1-2).

세번째로 위협이론에 따르면 집단간 갈등, 특히 이주민 갈등은 실재하는 불이익이나 경쟁이 아니라 이주민에 대한 인지적 불이익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즉, 외집단인 이주민을 내집단이 어떤 위협요인으로 상정하는지가 집단간 갈등을 유발하는 핵심 요건중 하나이다. 외집단에 대한 위협인식이 강한 개인은 외집단에 대한 인지편향에 빠지거나 외집단에게 호의적인 국가정책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Stephan, Ybarra, Morrison, 2018).

이는 본 연구의 종속변수와 일치한다. 따라서 이주민의 유입으로 추측되거나 인지되어지는 불이익과 두려움이 강할수록 이주민 호의 정책에 대한 반대 태도가 심화될 것이다 (가설 1-3).

가설 2: 이주민과의 친밀한 접촉이 이주민 정책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완화시킬 것이다.

가설 3: 부정적 이주민 인식이 이주민 호의 정책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친밀한 접촉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본 연구의 두번째 및 세번째 가설은 이주민과의 접촉, 특히나 친밀하고 깊은 접촉이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다. 우선 가설 2 에서는 이주민과의 친밀한 접촉이 이주민에게 호의적인 정책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완화시킨다고 추정한다. 접촉 이론에 따르면 외집단에 대한 지식과 친분을 고조시키는 깊은 접촉은 기존의 '인지된' 편견을 '타당한' 시각으로 변화시킨다 (AllportG, 1954). 더불어 편견의 감소는 자연스럽게 외집단에 대한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며, 우호적인 행동을 유발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접촉이 누적되어 외집단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외집단을 향한 적대적 태도 자체가 변화하게 된다 (Pettigrew, 1998).

본 연구의 가설 3 은 가설 1 에서 나타나는 직접관계가 이주민과의 친밀한 접촉을 통해 조절될 것이라는 추정이다. 기존의 연구가 접촉을 통한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매개모형을 주로

사용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세가지 유형의 이주민 인식이 부정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주민과의 친밀하고 깊은 접촉이 유의미하게 완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한다.

제 3 장 자료와 분석방법

제 1절 연구자료

본 연구는 2015 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 내 내국인 주민 인식조사」를 사용한다.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 내 내국인 주민 인식조사」는 외국인의 집중도를 통해 외국인과 내국인의 접촉 및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된 통계 자료로서, 크게 내국인 인구와 외국인 인구의 대비비를 토대로 13 개의 외국인 집중 거주 지역을 선정하였고, 집중도의 차이 및 영향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 외 집중 거주 지역들과 인접해 있는 22 개의 지역을 추가로 선정하였다. 실제 접촉의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들과는 차별점을 두어 동단위로 지역 범위를 축소하였다. 이렇게 조사된 지역은 구로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그리고 광명시와 안산시 및 시흥시이다[1] (최경수 외, 2016).

[표 1]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조사지역은 외국인 집중 거주 지역으로 전국이나 서울특별시와 비교하였을 때 외국인의 비율, 특히나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국적 동포의 비율이 굉장히 큰 편이다. 이주민의 밀집은 그들이 거주하는 해당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자료와

[1] 구로구 (구로1동, 구로2동, 구로3동, 구로4동, 구로5동, 가리봉동), 관악구 (조원동, 미성동), 금천구 (가산동, 독산1동, 독산3동, 독산4동), 동작구 (신대방1동), 영등포구 (대림1동, 대림2동, 대림3동, 신길3동, 신길4동, 신길5동, 신길6동), 광명시 (철산2동, 철산4동, 하안4동), 안산시 (선부1동, 선부2동, 선부3동, 원곡본동, 원곡1동, 원곡2동, 초지동), 시흥시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정왕4동)

거의 일치하는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을 탐색연구한 결과, 이주민 밀집지역과 그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내국인들의 이주민 수용성은 그 외 지역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수용성의 지표로는 외국인 정책에 대한 태도도 포함되었다 (박효민, 김석호 & 이상림, 2016). 즉, 본 연구는 전체적인 한국인의 이주민 인식과 수용성을 탐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 자료의 특성상 연구의 결과가 극단적일 수 있고 방향과 강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추후 더욱 일반화가 용이한 후속연구를 촉구한다.

해당 연구자료는 총 1000 개의 표집을 만 20 세 이상, 70 세 미만의 성인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중 500 개는 집중거주 지역에서, 500 개는 인접 지역에서 추출하였다. 할당표집을 통하여 동별 표본을 해당 구의 연령 및 성별 구성을 반영하도록 할당하였으며 65 세 이상의 응답자는 표본 수가 적어 하나의 연령집단으로 설정하였다(최경수 외, 2016).

이에 더하여 본 연구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에서 수집된 「한국종합사회조사 (Korea General Social Survey, KGSS) 」의 2010 년 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집단의 특수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해당 자료는 전국에 거주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수집하였으며 이주민 인식에 대해 주자료와 동일한 문항이 존재하여, 본 연구의 중심집단이 되는 외국인 밀집지역 거주민의 경우와 비교분석하기에 용이하다. 본 연구는 해당 자료를 기초통계와 이주민 인식 분석에 활용하여 내국인 전체와 외국인 밀집지역 거주민 간의 인식 차이를 드러내고 추후 더욱 포괄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표 1] 주민등록 외국인 비율

구분 Section	주민등록 인구 (명)	주민등록 인구 중 외국인 비율 (%)					
		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전국	51,141,463	2.38	1.05	0.29	0.16	0.46	0.42
서울특별시	10,143,645	3.36	1.03	0.29	0.29	0.95	0.80
구로제 1 동	22,757	3.86	0.65	0.20	0.03	2.74	0.25
구로제 2 동	31,517	31.08	13.06	1.95	0.15	7.13	8.79
구로제 3 동	27,659	6.19	2.36	0.50	0.08	1.50	1.74
구로제 4 동	25,868	22.38	8.95	1.47	0.10	5.76	6.08
구로제 5 동	31,932	14.02	5.61	0.73	0.12	3.47	4.10
가리봉동	12,874	71.97	35.44	2.71	0.26	20.45	13.11
조원동	18,267	14.79	6.74	0.61	0.09	4.14	3.20
미성동	33,658	1.90	0.66	0.23	0.02	0.55	0.44
가산동	19,349	29.74	14.63	1.12	0.12	8.19	5.69
독산제 1 동	31,711	12.61	5.88	0.88	0.09	3.27	2.49
독산제 3 동	27,845	18.96	8.77	1.00	0.04	5.07	4.08
독산제 4 동	18,753	9.26	3.87	0.84	0.09	2.10	2.37
신대방제 1 동	25,907	14.40	6.11	0.74	0.06	3.87	3.61
대림제 1 동	16,377	27.15	12.01	1.44	0.10	6.74	6.85
대림제 2 동	16,558	68.50	30.06	2.95	0.27	17.39	17.83
대림제 3 동	27,828	19.19	8.24	1.05	0.09	5.10	4.71
신길제 3 동	16,327	9.97	4.13	0.68	0.02	2.58	2.55
신길제 4 동	12,379	14.46	6.15	0.72	0.07	3.99	3.53
신길제 5 동	15,821	23.78	9.68	1.52	0.09	6.58	5.90
신길제 6 동	22,631	10.85	4.57	0.55	0.04	3.03	2.66
철산 2 동	17,784	2.50	0.93	0.30	0.00	0.65	0.62
철산 4 동	15,646	1.48	0.53	0.24	0.01	0.37	0.33
하안 4 동	14,743	0.35	0.05	0.10	0.01	0.11	0.07
원곡본동	33,256	79.92	40.33	5.18	0.35	18.55	15.51
원곡 1 동	9,045	71.58	34.65	4.17	0.21	18.01	14.54
원곡 2 동	16,717	0.98	0.24	0.13	0.02	0.28	0.31
초지동	47,268	17.00	14.59	0.43	0.07	1.21	0.71
선부 1 동	17,774	6.91	2.30	1.48	0.02	1.33	1.79
선부 2 동	23,944	23.29	11.85	1.68	0.25	5.34	4.17
선부 3 동	36,445	2.22	0.60	0.50	0.03	0.45	0.64
군자동	42,999	2.04	0.65	0.52	0.02	0.39	0.46
정왕 1 동	30,116	38.43	21.56	1.96	0.82	8.81	5.28
정왕 2 동	36,381	5.02	3.93	0.33	0.01	0.40	0.35
정왕 4 동	25,005	0.71	0.13	0.18	0.00	0.19	0.20
정왕본동	24,043	53.94	28.94	3.40	0.37	12.13	9.10

제 2절 분석방법

본 연구는 두가지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첫째로 회귀분석을 통해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주민에게 호의적인 정책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가설 1)을 조사하였다. 둘째로 회귀분석을 통해 친밀한 접촉이 이주민에게 호의적인 정책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가설 2)를 탐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친밀한 접촉이 가설 1 의 직접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절효과분석을 사용하였다 (가설 3).

제 3절 변수의 구성

1)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은 이주민 수용성 연구의 기반이 되는 사회정체성, 경쟁인식, 위협인식, 그리고 접촉으로 설정하였다.

우선 사회정체성에 기반한 이주민 인식의 경우 리커트 척도 1 에서 5 까지 구성된 세가지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세가지 문항은 “일반적으로 이민자들은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더 피해를 준다”, “이민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문화를 가져옴으로써 한국사회를 좋게 만든다”, 그리고 “이민자들이 많아지면 사회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다. “이민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문화를 가져옴으로써 한국사회를 좋게 만든다” 문항은 역코딩하여 부정적인 인식이 리커트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차지하도록 조작하였다. 해당하는 세개의 문항은 앞서 이론적으로 설명한것과 같이 이주민의 유입이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나 피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내집단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이주민 수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사회정체성의 지표가 된다.

두번째로 경쟁인식에 기반한 이주민 인식의 경우 리커트 척도 1 에서 5 까지 구성된 두가지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해당 문항은 “이민자들은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와 “이민자들은 인력이 부족한 직종을 채워준다” 문항을 역코딩한 변수이다. 두개의 문항은 외집단인 이주민을 희소자원인 일자리의 경쟁자로 바라보는 정도를 측정하여 경쟁인식이 이주민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세번째로 위협인식에 기반한 이주민 인식의 경우 리커트 척도 1 에서 5 까지 구성된 두가지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는 “이민자들은 일반적으로 한국 경제에 도움을 준다” 문항을 역코딩한 변수와 “이민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그들의 복지를 위해 우리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늘어난다” 문항이다. 이는 외집단을 내집단에 대한 위협요소로 인식하는 경우, 특히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현실적/경제적 위협을 대표하는 문항들로써 이를 통해 위협인식과 이주민 수용성간의 관계를 확립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친밀한 접촉은 “지난 2 주 동안 연락 또는 접촉하신 외국인 중 귀하의 한국인 친구만큼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항을 더미변수로 조작하여 0 이 접촉 없음, 1 이 친밀한 접촉 있음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깊은 접촉이 이주민 호의 정책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다.

2)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이주민에게 호의적인 정책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한국 국적이 없어도 합법적으로 한국에 이주한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과 동등한 복지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합법적으로 이주한 외국인에게는 가족들을 데려올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합법적으로 한국에 장기간 거주한 외국인들에게는 영주권이 없더라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 “소수인종집단의 전통과 풍습을 보존해주기 위해 정부가 이들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등 총 네 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이주자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에 대한 매우 찬성부터 매우 반대까지의 1-5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네 문항을 요인분석 한 결과 Kaiser-Meyer-Olkin (KMO) 값이 0.755 로 문항의 결합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고, 네 문항을 모두 포함하여 요인점수를 구하였다. 요인점수를 선택한 이유는 각 문항이 뜻하는 이주민 수용의 정도가 다르다고 판단되어 각 문항이 가지는 가중치를 고려하기 위함이다.

3) 조절변수

본 연구의 조절변수인 친밀한 접촉은 앞서 독립변수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지난 2 주 동안 연락 또는 접촉하신 외국인 중 귀하의 한국인 친구만큼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항을 더미변수로 조작하여 0 이 접촉 없음, 1 이 친밀한 접촉 있음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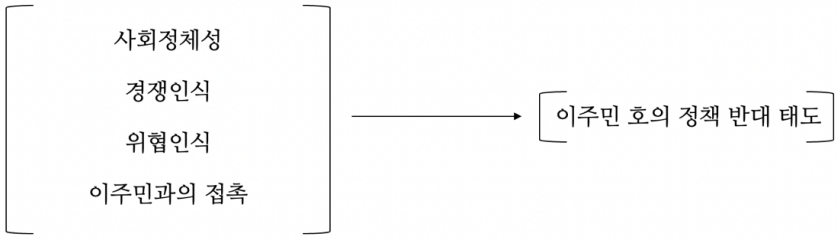
4) 통제변수

성별, 나이, 배우자 유무, 자녀 유무, 교육 수준, 취업여부, 가구 월평균 소득 및 주택 소유 여부 등 이주민에 대한 태도 및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통계과정에서 통제하였다. 나이 및 가구 월평균 소득은 연속변수로 취급하였고 나머지는 더미변수로 조작하여 통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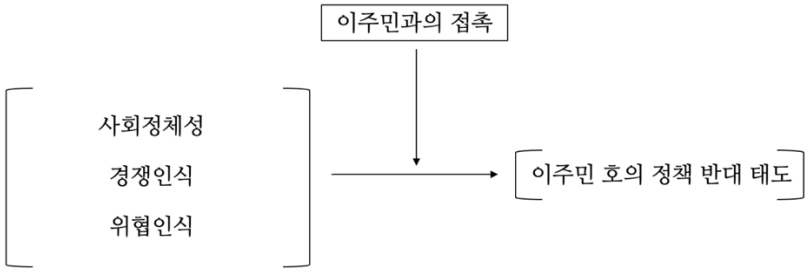
제 4절 연구모델

위에서 설명한 가설 및 변수에 따라 본 연구에서 중심이 되는 연구모델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델 1, 2, 3, 4, 5 (가설 1, 2)



[그림 2] 연구모델 6, 7, 8 (가설 3)



제 4 장 분석결과

제 1절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구에 포함된 응답자들의 사회인구학적 기초통계는 [표 2]와 같다. 이에 더하여 「한국종합사회조사 (Korea General Social Survey, KGSS) 」의 2010 년 자료를 함께 분석하여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과 전국 통계의 차이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우선, 연령은 대체로 20 대부터 50 대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으나 60 대 이상의 응답자는 나머지 연령대의 50%정도 되었다. 이는 국내 연령 분포와 대체로 큰 차이가 없는 통계이지만, 집중 거주지역의 경우 50 대의 인구가 전국 통계보다 두배 가량 많았다.

혼인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가 결혼하지 않았거나 배우자가 없는 상태인 응답자보다 두배 이상 많았지만, 자녀의 유무는 반대로 자녀가 없는 응답자가 두배 많았다. 혼인상태 또한 전국 통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의 기혼률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났다.

교육 수준의 경우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가 각각 응답자의 50% 가까이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중학교, 초등학교 및 대학원 졸업자 순으로 많았다. 이는 전국 통계와 상이한 수치였는데,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과 달리 전국 통계에서는 초등학교 이하와 대학원 이상이 더 크게 나타났고 오히려 고등학교 졸업이 마지막 학력인 경우는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보다 20%가량 낮았다.

취업상태의 경우, 무직인 응답자가 약 30%였고 소득자는 자영업,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순으로 많았다. 전국 통계보다 무직 인구의 비율이 조금 더 낮게 나타났으며 임시직과 자영업이 큰 비율을 차지했다. 더불어 주택 점유 형태 또한 자가가 60% 이상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전세, 월세 순인 것으로 보아 본 연구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한국사회의 현 동향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구 평균 소득 또한 300-499 만원 응답자가 50% 이상을 차지했는데, 작년 한국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인 486 만 9 천원을 감안했을 때, 적절한 할당표집의 결과로 나타났다 (통계청, 2022). 그러나 전체적인 분포를 살펴보면,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에서 200 만원 미만과 700 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인구가 전국 통계보다 더 낮게, 그리고 300 만원 이상 및 600 만원 미만 소득을 가진 인구가 전국 통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인구학적 기초통계는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전국과 비슷한 양상을 띄지만, 그 분포와 수치에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및 결론은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 내 표본에 한정되어야 할것이며 추후 더욱 포괄적인 연구가 촉구된다.

[표 2] 기초통계표

		집중거주 지역		전국
		N	%	%
나이 (M = 42.29, SD = 13.18)	20 대	219	19.98	18.74
	30 대	255	23.27	23.47
	40 대	262	23.91	22.84
	50 대	236	21.53	13.91
	60 대	124	11.31	8.76
혼인상태	기혼	751	68.52	63.07
	미혼 (사별 및 이혼 포함)	345	31.48	36.93
자녀 유무	있음	388	35.40	71.83
	없음	708	64.60	28.17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32	2.92	14.41
	중학교	48	4.38	8.82
	고등학교	540	49.27	30.14
	대학	459	41.97	40.67
	대학원 이상	15	1.37	5.96
취업상태	무직	328	29.93	40.10
	상용직	230	29.20	30.08
	임시직	130	11.86	6.60
	일용직	32	2.92	4.25
	자영업	286	26.09	18.97
주택 점유 형태	자가	688	62.77	–
	전세	297	27.10	
	월세	102	9.31	
	기타	5	0.46	
가구 평균 소득 (세전) (M = 385.06, SD = 146.76)	200 만원 미만	59	5.38	25.76
	200-299 만원	158	14.42	13.64
	300-399 만원	301	27.46	15.23
	400-499 만원	307	28.01	11.23
	500-599 만원	172	15.69	7.1
	600-699 만원	50	4.56	4.57
	700 만원 이상	49	4.47	9.96

연구의 독립변수가 되는 이주민에 대한 인식의 전반적인 추세는 [표 3]에 나타낸 바와 같으며, 「한국종합사회조사 (Korea General Social Survey, KGSS)」를 함께 분석에 포함하여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의 차별성을 드러내었다.

사회정체성에 관련된 인식의 경우 세가지 문항을 통해 측정되었는데, "이민자들은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더 피해를 준다" 문항의 평균은 3.23, 표준편차는 0.88 이었으며 "이민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문화를 가져옴으로써 한국사회를 좋게 만든다" 문항을 역으로 코딩하였을 때 평균이 3.26, 표준편차가 0.81, 그리고 "이민자들이 많아지면 사회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다" 문항은 평균이 3.54, 표준편차가 0.82 이었다. 대체적으로 답변이 부정적인 태도로 치우친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양극단의 답변 또한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답변이 긍정적이고 극단적인 답변보다 최소 다섯배, 최대는 열배까지 많았다. 전국 통계의 경우 대체로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의 인구와 비슷한 분포의 답변을 하였지만, 극단적인 답변이 더욱 많이 관찰되었고 온건한 답변은 오히려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보다 낮게 나타났다.

경쟁에 관련된 인식의 경우 두가지 문항을 통해 측정되었는데, "이민자들은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 문항의 평균은 3.09, 표준편차는 0.85 이었으며 "이민자들은 인력이 부족한 직종을 채워준다" 문항을 역으로 코딩하였을 때 평균은 2.51, 표준편차는 0.80 이었다. 사회정체성과는 다르게 첫번째 문항은 미미하게 부정적 인식으로, 두번째 문항은 긍정적 인식으로 치우쳤으며 양극단의 답변 차이 또한 크지 않았다. 경쟁에 관련된 인식 또한 전국 통계의 경우 극단적인 답변이 더욱 많이 관찰되었고 온건한 답변은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특히나 "이민자들은 인력이 부족한 직종을 채워준다" 문항에서 차이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과 다르게 전국 통계에서는 문항에 찬성하는 쪽으로 답변의 분포가 기울었다.

마지막으로 위협에 관련된 인식의 경우 두가지 문항을 통해 측정되었는데, “이민자들은 일반적으로 한국 경제에 도움을 준다” 문항을 역으로 코딩하였을 때 평균이 2.8, 표준편차가 0.79 이었으며 “이민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그들의 복지를 위해 우리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늘어난다” 문항의 경우 평균이 3.25, 표준편차가 0.91 로 나타났다. 경쟁인식과 마찬가지로 첫번째 문항과 두번째 문항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치우쳤으며, 두 문항 모두 보통을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높았다. 더불어 위협인식 역시 양극단의 답변 차이가 크지 않았다. 전국 통계 또한 앞선 결과와 같이 극단적인 답변이 조금 더 많이 관찰되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사회정체성과 관련된 이주민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에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났으며 극단적인 답변을 선택한 응답자도 다수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쟁인식과 위협인식의 경우 응답자들이 비교적 중립적인 답변을 많이 선택하였으며 문항이 치우친 방향 또한 각기 달랐다. 전국 통계의 경우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보다 조금 더 극단적이고 한쪽으로 치우친 답변을 많이 관찰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다시 한번 더욱 포괄적인 이주민 연구를 촉구한다.

[표 3]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집중거주 지역		전국
		N	%	%
사회정체성				
가난한 사람 피해 (M =3.23 SD = 0.88)	매우 찬성	69	6.30	6.85
	찬성	368	33.58	29.51
	보통	426	38.87	33.88
	반대	221	20.16	23.54
	매우 반대	12	1.09	4.44
문화 다양화 (-) (M =3.26 SD = 0.81)	매우 찬성	6	0.55	4.12
	찬성	180	16.42	26.4
	보통	491	44.8	42.7
	반대	358	32.66	20.88
	매우 반대	61	5.57	3.74
사회갈등 심화 (M =3.54 SD = 0.82)	매우 찬성	92	8.4	10.03
	찬성	548	50.05	43.65
	보통	331	30.23	25.38
	반대	114	10.41	17.32
	매우 반대	10	0.91	2.28
경쟁인식				
일자리 경쟁 (M =3.09 SD = 0.85)	매우 찬성	34	3.1	4.89
	찬성	341	31.11	23.29
	보통	430	39.23	30.27
	반대	278	25.36	34.33
	매우 반대	13	1.19	6.09
인력부족 노동력 제공 (-) (M =2.51 SD = 0.80)	매우 찬성	60	5.47	14.66
	찬성	543	49.54	61.74
	보통	373	34.03	15.29
	반대	109	9.95	5.77
	매우 반대	10	0.91	1.52
위협인식				
한국 경제 도움 (-) (M =2.8 SD = 0.79)	매우 찬성	9	0.82	7.23
	찬성	422	38.5	41.94
	보통	458	41.79	34.39
	반대	187	17.06	12.25
	매우 반대	20	1.82	2.86
복지예산 부담 (M =3.25 SD = 0.91)	매우 찬성	67	6.11	9.14
	찬성	399	36.41	37.63
	보통	417	38.05	28.87
	반대	175	15.97	19.54
	매우 반대	38	3.47	3.17

연구의 조절변수가 되는 접촉은 [표 4]에 나타난 것과 같다.

2 주동안 외국인과 일반적인 접촉을 한 사람은 응답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정도였다. 이는 자료의 수집 장소가 이주민 밀집지역인 만큼, 이주민과의 접촉이 여타 지역보다 더욱 활발한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접촉을 한 집단 중 “한국인 친구만큼 가깝게 지내는 외국인”과의 접촉을 분리하여 표기하였을 때, 친밀한 외국인과의 접촉은 약 15% 였다. 즉, 이주민과의 접촉은 많지만 그것이 상호적인 관계와 소통을 이끌어낼 만큼의 접촉인 경우는 소수인 것이다. 그러나 접촉이론에 따르면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접촉의 질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기 때문에 접촉의 친밀도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Allport, 1954).

[표 4] 이주민과의 친밀한 접촉

		N	%
접촉여부	2 주간 접촉 있음	637	58.12
	2 주간 접촉 없음	459	41.88
친밀한 접촉	2 주간 친밀한 접촉 없음	937	85.49
	2 주간 친밀한 접촉 있음	159	14.51

제 2절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이주민 호의 정책 반대에 미치는 영향

[표 5]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이주민 호의 정책에 대한 의견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냈다. Model 1 에서는 사회정체성 관련 인식에 해당하는 세가지 문항의 회귀분석 결과를, Model 2 에서는 경쟁인식에 해당하는 두가지 문항의 결과를, Model 3 에서는 위협인식, 특히나 경제적인 위협인식에 해당하는 두가지 문항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Model 4 에서는 접촉의 방식이 이주민 호의 정책에 대한 의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Model 5 에서는 앞선 이주민 인식과 이주민 접촉 경험이 서로를 통제할 수 있도록 모든 변수를 포함한 회귀 결과를 나타내었다. Model 6, 7, 8 은 조절변수인 친밀한 접촉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 세가지 조절효과를 표기하였는데 이는 독립변수가 “인력부족 노동력 제공”, “한국 경제 도움”, 그리고 “복지 예산 부담”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주민에 대한 인식은 리커트 척도 1 점씩 증가하며, 그에 따른 이주민 호의정책에 대한 의견의 변화는 관련된 네 문항을 통해 산출한 요인점수의 변화이다.

우선 통제변수로 포함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살펴보면, 다수의 모델에서 성별과 취업여부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함을 알 수 있다. 성별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이주민 호의정책에 반대할 가능성이 감소했다. 이주민 수용성의 성별 차이는 많은 연구에서 다르게 드러나고 있지만,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이주민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윤인진 & 송영호, 2011). 취업여부 변수에서는 취업을 한 개인일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이주민 호의정책에 반대할 가능성이 감소했다. 이는 앞서 제시된 이주민 수용성

이론들에 기반하여, 취업을 한 개인일수록 일자리를 두고 이주민과 경쟁을 할 가능성이 적어지고, 또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줄어 경제적인 위협을 덜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곽윤경, 2020).

Model 1 에서는 사회정체성과 관련된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독립변수로, 이주민에게 호의적인 정책에 반대하는 정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이민자는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경제적 피해”, “이민자는 문화 다양화로 인한 사회발전 (역코딩)”, 그리고 “이민자는 사회갈등 심화” 세 문항 모두 0.01 수준으로 유의하게 이주민 호의정책 반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개인이 아니라 집단 전체에 이민자의 유입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예측하거나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일 수록 이주민에게 호의적인 정책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었고, 특히나 “문화 다양화로 인한 사회발전” 문항을 역코딩한 변수가 회귀계수 0.268 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Model 2 에서는 경쟁인식과 관련된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독립변수로, 이주민에게 호의적인 정책에 반대하는 정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이민자는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 및 “이민자들은 인력이 부족한 직종을 채워준다 (역코딩)” 문항 모두 0.01 수준으로 유의하게 이주민 호의정책 반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이민자와 특히 취업의 문제에 있어서 경쟁구도에 놓일 것이라는 인식이 이주민에게 호의적인 정책을 반대하게 만들었고, 특히나 노골적으로 “이민자들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서술한 문항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Model 3 에서는 위협인식과 관련된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식, 특히나 경제적인 부분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이주민에게 호의적인 정책에 반대하는

정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민자들은 한국 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다 (역코딩)” 문항과 “이주민의 복지를 위해 우리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늘어난다” 문항 모두 0.01 수준으로 유의하게 이주민 호의정책 반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Model 5 에서 위 세가지의 독립변수 및 접촉을 모두 포함하여 서로 통제하는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이주민에게 호의적인 정책에 반대하는 정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조금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우선적으로, “이민자는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피해”, “이민자는 인력부족 노동력 제공 (역코딩)”, 그리고 “이민자의 복지예산 부담 가중” 이 세가지 문항은 이전 모델들과 달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정체성, 경쟁인식, 그리고 위협인식을 가장 효과적이고 독립적으로 대표하는 문항들을 선발할 수 있었다. 사회정체성과 관련된 이주민 인식은 “문화 다양화를 통한 사회발전 (역코딩)”, “사회갈등 심화”가 유의했고, 경쟁인식과 관련된 이주민 인식은 기반 이론에 부합하게 “이주민과의 일자리 경쟁”이 유의했으며 위협인식 또한 기반 이론과 같은 맥락에서 “이주민이 한국 경제에 도움 (역코딩)”이 유의했다. 더불어 독립변수를 서로 통제했을 때 이주민에게 호의적인 정책을 반대하는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회귀계수가 0.272 인 “이주민이 한국 경제에 도움 (역코딩)” 이었으며 이는 위협인식 관련 문항이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우선적으로 본 연구의 종속변수와 관련이 있다. 연구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태도를 관찰하기 위해 "이주민에게 호의적인 정책에 반대하는 정도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주로 통합적 위협이론에서 사용되는 종속변수이다. 통합적 위협이론에서는 위협이 높을 수록 외집단에게

호의적인 정책이나 제도를 반대하는 경향이 보이는 것을 하나의 결과적 행동으로 특정 짓고 있다. 따라서 다른 독립변수들 또한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기 때문에 종속변수에 일정부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위협인식은 다른 변수들보다 두배가 넘는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Model 4 에서는 본 연구의 조절변수로도 사용되는 친밀한 접촉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접촉한 외국인이 한국인 친구만큼이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접촉이 없는 경우보다 이주민에게 호의적인 정책에 반대할 가능성이 감소했고, 결과는 높은 수준으로 유의미했다. 이는 앞서 제시한 접촉가설에 의해 해석될 수 있는데, 가까운 친구는 올포트(1954)가 제시하는 적절한 접촉의 환경인 동등한 지위, 공통의 목적, 상호간 협력, 제도에 순응하는 접촉 등을 가장 효과적으로 충족한다. 더불어 친밀한 관계를 통한 접촉은 외집단에 대한 더욱 깊고 개인적인 정보를 얻게 하여 이전의 기반 없는 편견에서 나아가 타당한 판단과 그에 따른 존중을 유발한다 (Gray & Thompson, 1953). 이는 친밀한 접촉을 통한 친분의 생성과 지식이 융합하여 초래되는 태도의 긍정적 변화이다.

[표 5] 이주민 호의정책 반대 태도

종속변수: 이주민 호의정책 반대	Model1	Model2	Model3	Model4	Model 5	Model6[2]	Model7	Model8
	B (SE)	B (SE)	B (SE)	B (SE)	B (SE)	B (SE)	B (SE)	B (SE)
사회정체성								
가난한 사람 피해	0.112** (0.035)				0.036 (0.037)	0.040 (0.037)	0.038 (0.036)	0.034 (0.037)
문화 다양화 (-)	0.268*** (0.036)				0.178*** (0.037)	0.176*** (0.036)	0.182*** (0.036)	0.176*** (0.037)
사회갈등 심화	0.111** (0.038)				0.108** (0.037)	0.107** (0.037)	0.104** (0.037)	0.109** (0.037)
경쟁인식								
일자리 경쟁		0.231*** (0.035)			0.120** (0.037)	0.116** (0.038)	0.127** (0.037)	0.118** (0.037)
인력부족 노동력 제공 (-)		0.141*** (0.037)			0.059 (0.038)	0.029 (0.040)	0.060 (0.038)	0.058 (0.038)
위협인식								
한국경제 도움 (-)			0.394*** (0.037)		0.271*** (0.040)	0.272*** (0.040)	0.211*** (0.042)	0.271*** (0.040)
복지예산 부담			0.081** (0.031)		0.013 (0.033)	0.017 (0.033)	0.015 (0.033)	0.038 (0.036)
접촉(기준집단: 접촉없음)								
지난 2 주간 친밀한 접촉 있음				-0.229** (0.086)	-0.099 (0.080)	-0.664* (0.260)	-1.153*** (0.278)	0.397 (0.282)
상호작용 (이주민 인식*접촉의 질)								
인력부족 노동력 제공 (-)						0.231* (0.101)		
한국 경제 도움 (-)							0.398*** (0.101)	
복지예산 부담								-0.154+ (0.084)

[2] Model 6, 7, 그리고 8은 친밀한 접촉의 조절효과를 모두 검토한 후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된 모형만을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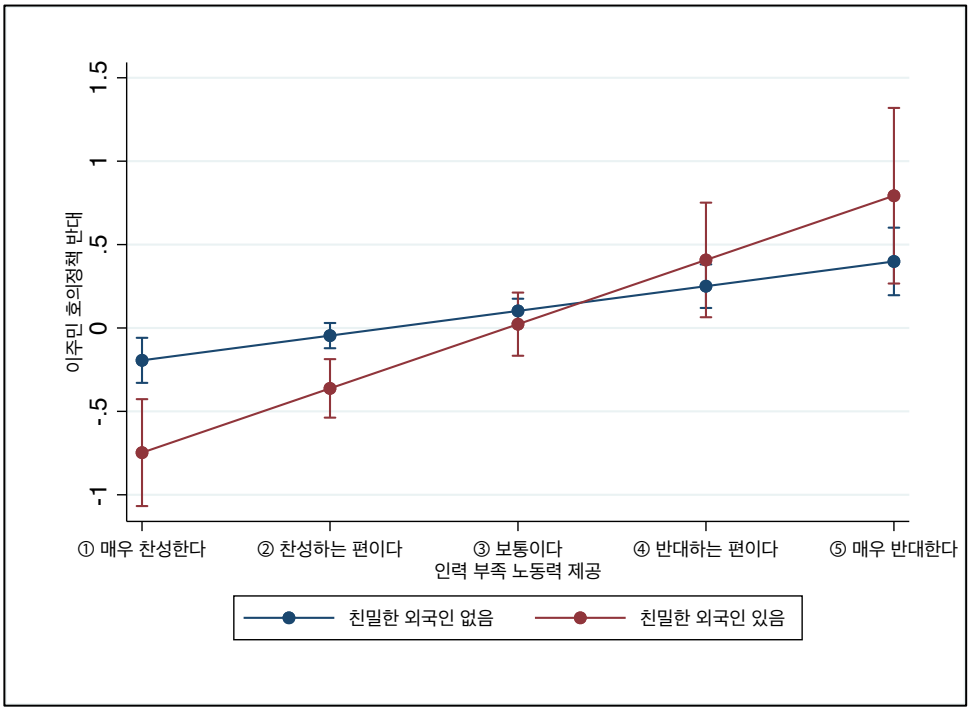
통제변수								
성별 (남성)	−0.143* (0.064)	−0.160* (0.064)	−0.122+ (0.063)	−0.161* (0.066)	−0.098 (0.062)	−0.099 (0.061)	−0.098 (0.061)	−0.101 (0.062)
나이	0.002 (0.003)	0.001 (0.003)	0.002 (0.003)	0.002 (0.004)	0.002 (0.003)	0.002 (0.003)	0.001 (0.003)	0.002 (0.003)
배우자유무	−0.009 (0.109)	0.031 (0.110)	0.070 (0.108)	0.039 (0.113)	0.017 (0.105)	0.022 (0.105)	0.035 (0.105)	0.015 (0.105)
자녀유무	−0.055 (0.082)	−0.104 (0.083)	−0.070 (0.081)	−0.107 (0.085)	−0.048 (0.079)	−0.042 (0.079)	−0.054 (0.079)	−0.043 (0.079)
교육수준	−0.002 (0.010)	0.003 (0.010)	0.004 (0.010)	0.001 (0.010)	0.004 (0.009)	0.005 (0.009)	0.006 (0.009)	0.005 (0.009)
취업여부	−0.175* (0.071)	−0.203** (0.071)	−0.179* (0.070)	−0.191** (0.073)	−0.179** (0.068)	−0.180** (0.068)	−0.190** (0.068)	−0.183** (0.068)
가구 월평균 소득	0.003 (0.021)	0.013 (0.022)	0.005 (0.021)	0.007 (0.022)	0.008 (0.021)	0.007 (0.021)	0.005 (0.021)	0.007 (0.021)
주택소유	0.242 (0.485)	0.238 (0.490)	0.355 (0.479)	0.056 (0.503)	0.437 (0.468)	0.432 (0.467)	0.407 (0.465)	0.456 (0.467)
상수	− 1.568*** (0.252)	− 1.042*** (0.230)	− 1.392*** (0.238)	0.069 (0.192)	− 2.414*** (0.273)	− 2.346*** (0.274)	− 2.267*** (0.274)	− 2.469*** (0.274)
N	1,095	1,096	1,096	1,096	1,095	1,095	1,095	1,095
R-Squared	0.097	0.073	0.114	0.019	0.166	0.17	0.178	0.169

*** $p<0.001$, ** $p<0.01$, * $p<0.05$, + $p<0.1$

제 3절 친밀한 접촉의 조절효과

앞서 독립변수로도 살펴보았던 접촉의 조절효과는 〈표 5〉에 나타난 것과 같다. 사회정체성, 경쟁인식, 그리고 위협인식으로 분류된 문항들이 이주민에게 호의적인 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앞선 독립적 효과가 가장 유의했던 접촉의 질의 조절효과를 검토했다. 조절변수의 기준집단은 지난 2 주간 접촉없음으로 설정하였다. 모든 조절효과를 산출하였을 때, 상호작용항이 유의미한 경우는 "이민자가 인력부족 노동력을 채워준다"(Model 6), "이민자가 한국 경제에 도움을 준다"(Model 7), 그리고 "이민자의 복지를 위한 세금이 가중될 것이다"(Model 8) 이렇게 세가지 독립변수로 제한되었다.

[그림 3] 이주민의 인력 부족 노동력 제공과 접촉의 질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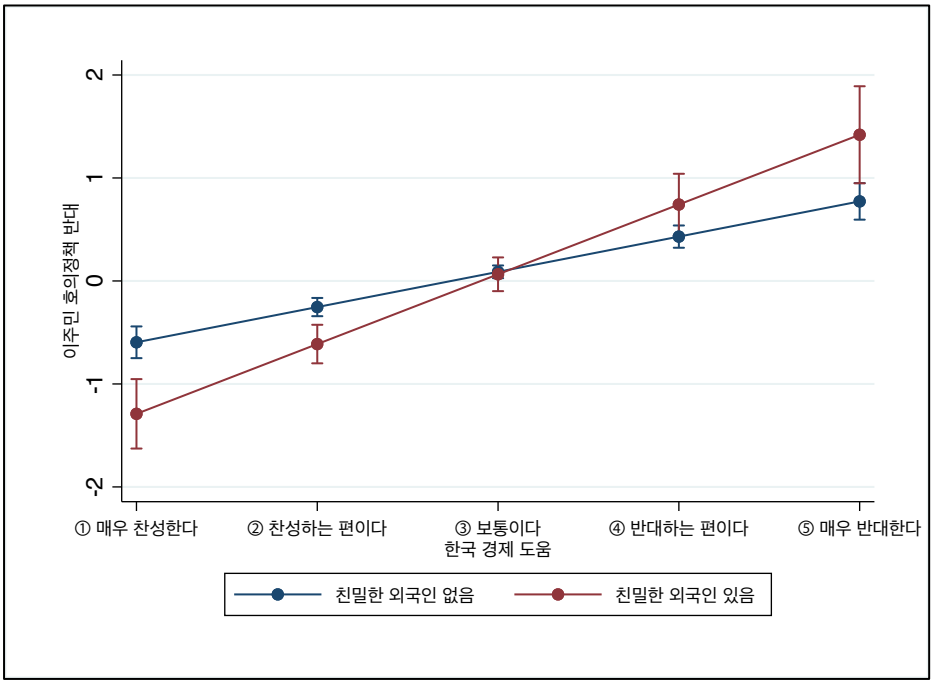


우선 “이민자들은 인력이 부족한 직종을 채워준다” 문항의 경우, 친밀한 외국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상관없이 문항에 반대할수록 이주민에게 호의적인 정책에 반대하는 태도가 나타났으나 접촉의 질에 따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유의미하게 조절되었다.

친밀한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이민자들은 인력이 부족한 직종을 채워준다” 문항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이주민 호의정책에 대한 반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큰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경우에는 친밀한 외국인이 있는 집단이 이주민 호의정책에 더 찬성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이주민 호의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되어 오히려 친밀한 외국인이 있는 집단이 더욱 큰 반대경향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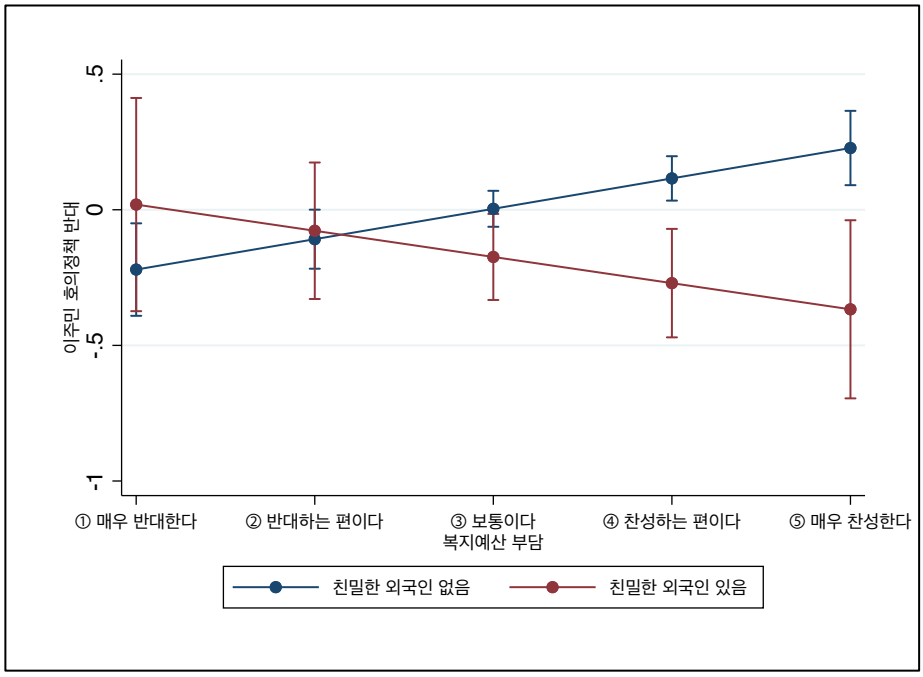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우선적으로 외국인과의 친밀한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부정적인 경우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주민 호의 정책 태도에 악효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더불어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보통이다, 반대하는 편이다 및 매우 반대한다의 경우에는 친밀한 접촉의 유무가 서로의 오차범위를 거의 포함하여, 두 집단의 차이는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 때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이주민의 한국 경제 도움과 접촉의 질 조절효과



“이민자들은 일반적으로 한국 경제에 도움을 준다” 문항에서도 앞선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띄는데, 우선 친밀한 외국인의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문항에 찬성할수록 이주민 호의정책에 반대하는 태도가 심화된다. 그러나 친밀한 외국인과의 접촉이 있는 경우, 문항에 대한 답, 즉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주민 호의정책 반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된다. 이는 앞선 인력 부족 노동력 제공 문항과 같은 양상이다.

[그림 5] 이주민을 위한 복지예산 가중과 접촉의 질 조절효과



마지막으로, “이민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그들의 복지를 위해 우리가 부담해야할 세금이 늘어난다” 문항의 경우, 앞선 두개의 상호작용과 다른 양상을 띈다. “복지예산 부담 가중” 문항에 대한 답변, 즉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주민 호의정책 반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친밀한 외국인과의 접촉 유무에 따라 그 방향성이 변화한다. 친밀한 외국인과의 접촉이 없을 경우 부정적 이주민 인식이 다른 여타 문항들과 동일하게 이주민 호의정책 반대 태도를 심화시키지만, 반대로 친밀한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민자들의 복지를 위해 부담해야 할 세금이 늘어난다고 생각할 수록 이주민에 대한 호의정책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인다.

해당 문항이 다른 문항들과 다른 결과를 도출하는 이유는 문항이 대상으로 하는 집단이 다른 문항들과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독립변수가

되는 다른 문항들은 대체로 내집단, 즉 한국인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측정한다. 따라서 친밀한 외국인과의 접촉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문항들에 강하게 부정적인 인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접촉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유일하게 “복지예산 부담” 문항은 한국인에게 가해지는 영향에 더불어 이주민의 복지, 즉 이주민이 대상이 되는 영향을 포함한다. 친밀한 외국인과의 접촉이 존재하는 경우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를 옹호하게 되고, 따라서 그들의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세금의 가중에는 유의미한 찬성 의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제 5 장 결론

본 연구는 본 연구는 한국인이 가지는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이주민에게 호의적인 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이주민과의 친밀한 접촉의 조절효과에 대한 더욱 세부적이고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2015 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 내 내국인 주민 인식조사」를 활용하였고, 독립변수로는 사회정체성, 경쟁인식, 위협인식에 기반한 이주민 인식을, 종속변수로는 이주민 호의정책 반대 태도를, 그리고 독립변수이자 조절변수로는 이주민과의 친밀한 접촉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와 그에 따른 해석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로, 선행연구 및 가설 1 에서 예측한 것과 같이 사회정체성, 경쟁인식, 그리고 위협인식은 모두 이주민에게 호의적인 정책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다른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도출된 결과이므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그 외 개입될 수 있는 변수가 최대한 상쇄된 상태에서, 위의 세가지 이주민 인식만으로도 이주민 호의정책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예측할 수 있었다.

사회정체성을 기반한 이주민 인식의 경우, 한국의 높은 국민정체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국은 영토성, 공동성, 그리고 역사성을 기반으로 하는 단일 민족 이데올로기와 밀접하게 연관된 문화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개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해지지 않더라도 이주민의 유입이 내집단인 한국 전체,

혹은 내집단의 다른 구성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외집단에 대한 편견이 유발되고, 외집단을 차별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더불어 사회정체성은 내집단에 대한 친사회성을 유발시키기도 한다는 선행연구를 통해 이주민 유입으로 인한 빈부격차의 심화가 유의한 독립변수로 작용한 것을 해석할 수 있다.

경쟁인식을 기반한 이주민 인식의 경우, 현재 한국의 취업구조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한국은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함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많은 노동력, 특히나 제조업 노동자의 유입을 저소득국가로부터 수용했다. 앞서 이론적으로 설명한 것과 같이 많은 노동력의 유입은 제조업의 취업경쟁을 심화하고, 그 외 직업군의 개인들에게도 외국인을 일자리에 대한 경쟁자로 인식하게 한다. 따라서 "이민자들은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 문항의 경우 확실한 경쟁인식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민자들은 인력이 부족한 직종을 채워준다" 문항의 역시 한국인이 이민자들을 필요한 노동력으로 인식하는지 불필요한 노동력의 과부하로 인식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두 문항 모두 이주민 호의 정책에 대한 반대 태도를 유의하게 설명했다.

위협인식에 기반한 이주민 인식의 경우, 현실적/경제적 위협에 초점을 맞추어 변수를 선정하였고 이주민이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국 경제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인지하는 방식에 따라 이주민 호의정책에 대한 반대 태도가 변화하였다. 더불어 한국 국민은 국가의 경제상황과 자신의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여타 OECD 국가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편이다 (통계청, 2021). 경제의 하락은 한정된 자원에 대한 의식을 더욱 강화하고, 이는 외집단에 대한 두려움 및 위협의식으로 이어진다 (Olzak, 1987).

두번째로, 이주민과의 친밀하고 깊은 접촉은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로써 모두 유의미하게 작용했다 (가설 2, 3). 접촉이 없는 경우보다 한국인 친구만큼이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외국인과 접촉한 경우, 이주민에게 호의적인 정책에 반대하는 태도가 유의미하게 완화되었다. 이는 친밀한 접촉이 앞서 올포트 (Allport, 1954)가 제시한 적절한 접촉의 환경을 효과적으로 충족하고, 더불어 깊은 관계의 형성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을 타당한 지식으로 변화시킨다는 그레이와 톰슨 (Gray & Thompson, 1953)의 주장 또한 뒷받침한다.

접촉의 조절효과는 크게 세가지의 독립변수가 포함된 모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이민자들이 인력부족 노동력 제공" 문항은 친밀한 외국인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긍정적 인식이 이주민 호의정책에 대한 반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과의 친밀한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이고 강한 인식에 의해 오히려 이주민 호의정책에 악효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민자들이 한국 경제에 도움" 문항 또한 앞선 결과와 비슷하게 친밀한 접촉이 있는 경우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주민 호의정책 반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되었다. 이 두 결과는 이미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극도로 부정적인 경우에는 접촉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마지막 "이민자로 인한 복지예산 부담" 문항의 경우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주민 호의정책 반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이 외국인과의 접촉 유무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를 해당문항이 대상으로 하는 집단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는데, 다른 문항들과는 다르게 "복지예산 부담" 문항은 한국인에게 가해지는 영향에 더불어 이주민의

복지향상을 포함한다. 따라서 친밀한 외국인의 유무가 해당 문항에 답변하는 개인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앞선 연구들과의 차이점에 있다. 앞서 살펴본 대다수의 이주민 연구들은 이주민 인식과 수용성을 하나의 변수로 통일하여 탐구하였거나 단일 이론을 기반으로 모형을 설정하였고, 접촉가설 연구에서는 대부분 접촉이 이주민 인식을 형성하고, 이주민 인식이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매개모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기저로 하는 이론과 메커니즘이 여러 하위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회정체성, 경쟁이론, 그리고 위협이론 이 세가지 다른 이주민 인식이 이주민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는 한국의 경우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주민과의 조우 이전에 이미 생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이는 접촉에 의해 생겨난 결과가 아니라 한국 국민에게 내재된 하나의 인식 및 특성으로서 연구되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졌다. 이를 위해 접촉을 매개가 아닌 조절모형에서 살펴보았고, 이주민 인식을 독립변수로, 접촉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그 관계를 탐구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차별적 모형은 다문화 및 외국인에 대한 수용성이 현저히 낮은 편인 한국 사회에서 현재의 사회에 대한 진단과, 추후 이주민 갈등을 해결해야 할 방안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 또한 다수 존재한다.

첫번째로, 본 연구는 이주민 수용성 및 위협의식에 대한 제한적인 자료의 양으로 인하여 2015 년도의 통계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이후 수차례의 난민유입이나 코로나 19 등을 통하여 이주민과 내국인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통계를 수집할 경우 본 연구가 제시한 연구결과와 수치 및 방향성 등이 다를 수 있고, 또한 이주민 인식과 태도의 새로운 양상이 관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더불어, 앞서 설명한것과 같이 본 연구의 자료는 외국인 집중거주지역, 특히나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국적 동포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수집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와 비슷한 외국인 비율의 밀집지역과 그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내국인들의 이주민 수용성은 여타지역보다 더욱 부정적이고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박효민, 김석호 & 이상림, 2016).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직접 관찰하였고, 외국인 밀집지역의 거주민과 내국인 전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같은 방향성을 띄지만 다른 강도를 나타내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이 자료의 학문적 공백과 일반성의 개선을 위하여 추후 이주민 인식과 태도, 그리고 접촉효과에 대한 새로운 국민조사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한다.

두번째로, 본 연구는 이주민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설명하였다. 즉, 한국 국민이 아닌 모든 외국인에 대한 인식과 그들과의 접촉을 각각 독립변수 및 조절변수로 상정하였고, 따라서 이는 이주민의 인종이나 국내 체류 유형등을 고려하지 못했다. 다수의 앞선 연구들에서는 출신 국가 등을 포함한 이주민의 특성이 이주민 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재철, 2017; 김진희, 2019).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이주민의 접촉은 굉장히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접촉의 대상이 되는 이주민의 출신국가 등을 수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 또한 추후 더욱 전문적인 자료의 수집을 촉구한다.

세번째로, 사용한 통계의 설문이 본 연구를 위해 실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가 설정한 변수를 완벽하게 측정하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더불어

이주민의 거주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한국 사회에서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네번째로, 본 연구는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이주민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변수로 접촉을 주요하게 다루었다. 그러나 앞선 선행연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주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접촉 외에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예를 들어 다문화 교육의 유의미한 영향이 연구된 바 있고, 대중매체에 노출되는 이주민 또한 이주민에 대한 인식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앞선 연구에서 밝혀졌다 (박현주 외., 2015; 신동훈 & 양경은, 2020). 따라서 접촉의 독립적인 효과를 더욱 의미있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타 요인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 및 통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를 위하여 경쟁인식과 위협인식을 나누어 설명하였다. 경쟁인식의 경우에는 외집단이 일자리를 두고 경쟁자로서 작용하는 것이 확실한 문항들을 사용하였고, 위협인식의 경우에는 경제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을 인지하는지 관련 문항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앞선 이론적 설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사실상 경쟁인식과 위협인식은 모두 희소자원을 기반으로 한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 판단을 내포하며, 희소자원에 대한 경쟁이 전제하지 않으면 위협이 생성될 수 없기 때문에 경쟁인식을 위협인식의 하위요소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앞선 이주민 연구들과 상이하게 이주민 인식을 관점별로 분류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었고, 경쟁자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이주민 인식과 경쟁으로 인해 생성된 두려움이 주요한 이주민 인식을 나누어 탐구 및 해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학문적으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앞서 설명한 한계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이전의 이주민 수용성 연구들이 가지지 못한 문제의식을 통하여 새로운 방향성을 시도하였고, 몇가지 주요 시사점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주민의 유입이 가중되는 한국 사회에서의 사회통합 및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더욱 활발한 이주민 수용성 연구를 촉구하며, 본 연구가 단초가 될 것을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강진웅. (2019). 한국 민족주의 연구의 쟁점과 과제 . 민족연구, 73, 4-25.

곽윤경. (2020).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 다문화사회연구, 13(2), 5-26.

김용찬. (2008). 외국인노동력 국제이주정책의 수렴경향과 원인에 관한 연구: 영국과 독일 사례연구. 유럽연구, 26(2).

김정규. (2015). 한국인 민족주의와 상징적 폭력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사회 이론, 221-318.

김정규. (2016). 외국인 이주자,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다문화에 대한 포섭과 배제. 사회 이론, 167-296.

김진희. (2019). 한국 성인의 다문화수용성 비판과 이주민에 대한 편향적 태도 분석. 평생학습사회, 15(2), 127-153.

노윤구, & 이외선. (2018). 간호대학생의 사회적거리감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서 다문화접촉경험의 영향 . 디지털융복합연구, 16(1), 187-195.

박서연. (2019). 국민정체성과 위협의식,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학회, 35(1), 19-31.

박현주, 성정화, 손혜란, 이민영, 조현민, & 박신규. (2015). 다문화 접촉 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대구 지역 대학생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 7, 92-117.

박효민, 김석호, & 이상림. (2016). 이주민 주거 밀집지역 내 내국인 인식 연구. 한국정당학회부, 15(2), 105-138.

배은주, & 장소현. (2020). 외국이주민에 대한 직 · 간접 접촉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 위협인식의 매개효과 분석*. 생명연구, 55, 51-77.

서준우, & 강우창. (2021). 이주민 증가에 따른 이민자에 대한 인식 변화: 경제적 불평등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55(2), 33-55.

송영호. (2021). 구로구 지역 동네 효과(neighborhood effect)가 외국인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지역과 세계, 45(3), 103-129.

신동훈, & 양경은. (2020). 일상 속 이주민 목격과 대중매체의 이주민 재현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46(1), 111-139.

여성가족부. (2022). 「2021 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 발표. 여성가족부.

오영삼, 남성희, & 윤수경. (2014). 내집단의 특성이 다문화 집단에 대한 수용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통합적 갈등이론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4(2), 424-452.

윤인진, & 송영호. (2011).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 통일 문제 연구, 1(55), 143-192.

이수경. (2021). 예비교사의 문화지능에 대한 잠재계층 분류 및 계층별 영향요인과 집단별 다문화수용성 차이*.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0(6), 259-284.

이재철. (2017). 사회자본과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및 인식 분석 . 정치정보연구, 20(2), 275-304.

전윤령, & 이봉민. (2022). 청소년 국제교류에서의 접촉 양과 질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 초등 4, 5, 6 학년을 중심으로 .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1(3), 321-344.

정진리, & 유가현. (2020). 국민정체성 인식과 접촉 경험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교육적 접근의 필요성. 한국다문화교육학회, 13(3), 85-111.

정하나. (2016). 다문화 사회의 위협인식에 대한 영향요인: 한국인과 거주 외국인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3(2), 83-112.

조정인. (2011). 누가 왜 여성결혼이민자들과 생산기능직 근로자들의 유입 증가를 반대하는가: 문화적 위협변인과 경제적 위협변인의 영향력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5(2), 281-319.

조정인. (2014). 소득분배의 불평등과 기회 불평등 인식이 한국인들의 재분배정책 선호에 끼치는 영향력. 정치 • 정보연구, 17(2), 175-196.

지은정. (2021). 집단 간 위협이론의 관점에서 본 노인정책연령 : 노인인지연령을 넘어서. 한국행정연구, 30(2), 243-275.

최가희. (2019). 한국인 대학생의 외국인 유학생과의 접촉이 다문화 역량에 미치는 영향: 삶의 만족도와 현실갈등인식의 매개효과 .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5(4), 279-303.

최경수, 이규용, 이상림, & 정기선. (2016). 이민현황 및 장기적 영향평가를 통한 이민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 협동연구총서 16-05-01.

최재우, & 강운선. (2015). 매체접촉경험이 중학생의 다문화수용성태도에 미치는 학습자 특성 변인과의 상호작용* - 대구지역을 대상으로 -.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1), 89-114.

통계청. (2021). 소비생활만족도. Retrieved from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20&clasCd=8&idxCd=8007

김상욱. (2010). "한국종합사회조사: Korea General Socail Survey(KGSS)."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통계청. (2022). 2021 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 • 외국인 인구전망: 2020~2040 년. 통계청.

통계청. (2022). 2022 년 3/4 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 Retrieved from 통계청: https://www.kostat.go.kr/board.es?mid=b80501010000&bid=214&list_no=421780&act=view&mainXml=Y

행정안전부. (2023).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Retrieved from 행정안전부: https://jumin.mois.go.kr/

황정미. (2016). 사회적 위협 인식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 아태연구, 23(2), 311-346.

Abrams, D., Eller, A., & Bryant, J. (2006). Age Apart: The Effects of Intergenerational Contact and Stereotype Threat on Performance and Intergroup Bias. Psychology and Aging, 21(4), 691-702.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Cambridge,Mass: Addison-Wesley. .

Campbell, D. T. (1965). Ethnocentric and Other Altruistic Motives. Lincoln: N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Chen, K., Zhang, J., Ao, X., & Ramdass, J. (2021). The burden of being certain: National identity certainty predicts support for COVID-Related restrictive measures and outgorup conspiracy belief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14-428.

Coninck, D. D., Rodríguez-de-Dios, I., & d'Haenens, L. (2021). The contact hypothesis during the European refugee crisis: Relating quality and quantity of (in)direct intergroup contact to attitudes towards refugees.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24(6), 881-901.

Escandell, X., & Ceobanu, A. M. (2009). When contact with immigrants matters: threat, interethnic attitudes and foreigner exclusionism in Spain's Comunidades Autónomas. Ethnic and Racial studies, 32(1), 44-69.

González, K. V., Verkuyten, M., Weesie, J., & Poppe, E. (2008). Prejudice towards Muslims in The Netherlands: Testing integrated threat theory.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7, 667-685.

Gray, J. S., & Thompson, A. H. (1953). The ethnic prejudices of white and Negro college students. J Abnorm Psychol, 48(2), 311-313.

Hackel, L. M., Zaki, J., & Bavel, J. J. (2017). Social identity shapes social valuation: evidence from prosocial behavior and vicarious reward. Social cognitive and affective neuroscience, 1219–1228.

Laurence, J. (2014). Reconciling the contact and threat hypotheses: does ethnic diversity strengthen or weaken community inter-ethnic relations? Ethnic and Racial Studies, 37(8), 1328–1349.

Martínez, C. A., Proojien, J.-W. v., & Van Lange, P. A. (2022). A threat-based hate model: How symbolic and realistic threats underlie hate and aggression. Journal of Experimenetal Social Psychology, 103.

Olzak, S. (1987). Causes of ethnic conflict and protests in urban America, 1877–1889. Social Science Research, 16(2), 185–210.

Pettigrew, T. F. (1998). Intergroup contact theor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9(1), 65–85.

Pettigrew, T. F., & Tropp, L. R. (2005). Allport's intergroup contact hypothesis: Its history and influence. On the nature of prejudice: Fifty years after Allport, 262–277.

Pettigrew, T. F., Wagner, U., & Christ, O. (2010). Population Ratios and Prejudice: Modelling Both Contact and Threat Effects.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6(4), 635–650.

See, M., & Wade, W. P. (2022). Effects of living arrangements on well-being, perceived conflict, and intergroup attitudes for local and

international students: Results from a field interven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78, 544-562.

Stephan, W. G., & Stephan, C. W. (2000). An integrated threat theory of prejudice. In S. Oskamp, Reduc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pp. 23-45).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Stephan, W. G., Ybarra, O., & Morrison, K. R. (2018). Intergroup threat theory. In T. Nelson, Handbook of prejudice.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Swain, A. (2019). Increasing Migration Pressure and Rising Nationalism: Implications for Multilateralism and SDG Implementation. The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s and Social Affairs.

Tajfel, H., & Turner, J. C. (2004).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J. T. Jost, & J. Sidanius, Key readings in social spcyhology (pp. 276-293). Psychology press.

Tausch, N., Hewstone, M., & Roy, R. (2009). The Relationships between Contact, Status and Prejudice: An Integrated Threat Theory Analysis of Hindu－Muslim Relations in India.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19, 83-94.

Abstract

Korean's perception of immigrants
-The effect on attitudes toward pro-immigrant policy and the moderation of contact-

Nahyun Kwon

Department of Soci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current research begins with the idea that the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 immigrants should be classified into several secondary categories and that the contact with the immigrant should be treated as a moderator rather than an independent variable, which affects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perception towards the immigrants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The purpose of current research is to categorize the perception towards immigrants based on social identity theory, competition theory, and threat theory, and to investigate their effect on their attitude toward pro-immigrant policy. Furthermore, it is to identify the moderating effect of intimate contact. In order for this, the current research utilized 「investigation of local's awareness in residence of immigrants concentration」, collected by the Korean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n 2015. The negative perception towards the immigrants and attitudes toward pro-immigrant policy went through regression analysis, and the intimate contact was analyzed as moderator. The results are as following.

First, the negative perceptions towards immigrants based on social identity, competition, and threat were all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negative attitudes toward pro-immigrant policy. The threat perception about the immigrants' effect on the Korean economy had the strongest effect.

Second, intimate contact with the immigrants was found to be significant both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moderator. When there was intimate contact during the past two weeks, negative attitudes toward pro-immigrant policy significantly decreased.

The moderating effect of intimate contact was significant with three variables, which were "the immigrants provide necessary labor power", "the immigrant helps the Korean economy", and "the increase of tax due to the welfare budget for the immigrants".

The current research could discover the different strengths of the effect of various perceptions towards immigrants. Moreover, the moderating effect of intimate contact was found to relax the exclusionism towards the immigrants. Thus, this study suggests a new direction of social integration for improving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 current society, where the influx of immigrants is rapidly increasing.

Keywords : immigrant acceptability, multicultural acceptability, social identity, competition theory, threat perception, contact hypothesis
Student Number : 2021-25192